

승리는 원함과 마음을 놓고
패한 자는 괴로워하느니라. 적
정에 든 자는 승패를 버리고
인락하게 신다.
(法句經·인락품 2백1절)

東大新聞

발행인	민병권
편집인	김민수
주편집인	김재원
편집장	김재원
발행처	경북대학교 동대신문사
전화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60-3492)
팩스	(02)279-1270
발행일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770-2057)

제 1110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1955.10.13 제 3 종우선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2년(단기4325년) 10월28일 (수요일)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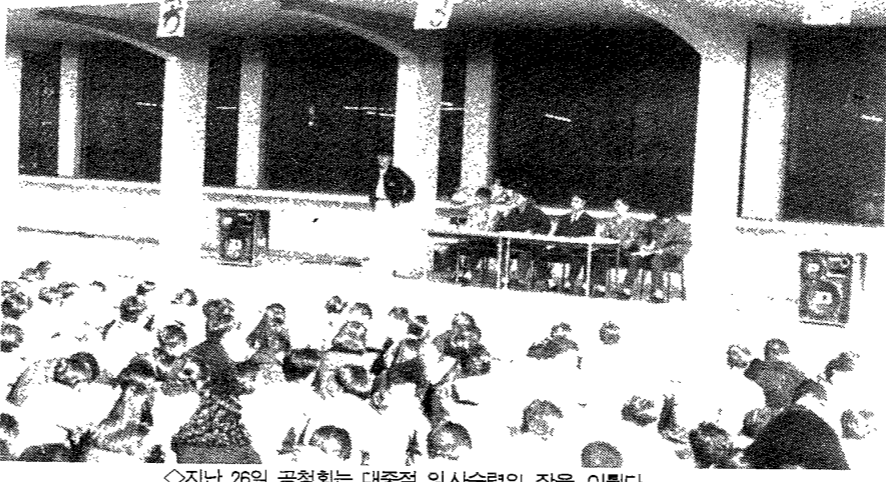
총투표로 선거시기 재결정해야

“총운위 정상화돼야 해결 빠르다” 중론 26일 공청회 다양한 해결방안 제시돼

제25대 총학생선거를 둘러싼 학생회차원의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1시 중앙도서관 앞에서 학생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학생선거위원회를 해결할 방도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지금까지 과정되어온 제반문제에 대한 진위여부와 이후 총학생선거시기 결정을 대중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지난 9월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학생선거 3월로 연기 결정은 학내 재학생자치기구간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해 이를 비판하는 대다수의 공방을 초래했다. 총학생선거결정후 40여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대중적인 의사수렴의 장으로 자리매김된 이날 공청회는 △대중투표를 통한 공방 및 △의사수렴의 진위여부 △총학생선거시기 재결정논의 △이러한 문제의 대안 제시 등 4가지의 의제를 다룬다.
하지만 공청회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돼 이를 지켜보는 학생들의 대중적 공감을 형성하기에는 미흡했다는 여론이 지배

적이다. 또한 공청회를 통한 이후 구체적인 방도가 결정되지 않아 조속한 시일내에 총투표를 통해 구체적인 선거시기를 확정해야 한다는게 중론으로 표출됐다.
이날 공청회 연사로 참석한 총학생회 총무부장 이희찬(철4)군은 “총대산하 총선위의 결정의 형식적 하자는 없으며 다만 연기결정이 대중적·공개적이지 못한 과정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며 “이후 발생한 대다수 공방은 학생회의 신뢰를 떨어뜨려 이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과대 학생회장 최우성(영문4)군은 “이날 공청회는 △의사수렴의 진위여부 △의사수렴의 장으로 자리매김된 이날 공청회는 △대중투표를 통한 공방 및 △의사수렴의 진위여부 △총학생선거시기 재결정논의 △이러한 문제의 대안 제시 등 4가지의 의제를 다룬다.”고 밝히면서 “선거시기 결정의 방안을 대중적으로 찾는 자리인 동시에 그방안의 하나로 단위 분임투표의 활성화 후 총투표를 통해 총학생선거위원회를 일단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 본순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제개정이 이루어졌는

데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총학생회, 총학생운영위, 총대의원의 진원사표 △총소수모단위의 토론회활성화로 이번분회의 대안모색 △분임투표의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 총투표를 통한 총학생선거시기 결정 △연학생회 중심의 학생대토론회 전개 등으로 표출됐다.
이와같이 총학생선거가 40여일동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채 2학기 주요행렬사안으로 부각된것에 대해 학생들은 총학생선거자체가 학내 구성원들의 대중적 공감대형성과 민주적인 절차가 없었던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청회자리를 통해 표출된 학생회구성원의 제반의사를 총학생운영위를 통해 조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또 공청회를 통해 대두된 총투표시점 사안도 각 단위학생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총학생선거를 반대하는 몇몇 학생회측에서 제기한 총투표에 대한 실시여부를 총학생운영위 내에서 빠른 시일내



△지난 26일 공청회는 대중적 의사수렴의 장을 이뤘다.

에 검토·확정하는 절차도 생략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학기 학생회사안이 예년과 비교해 이번 총학생선거시기결정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시급히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학생회운영의 정책 및 결정 책임단위인 총학생운영위가 조속히 정상화가 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조인환 기자

동국학술문화관 자문위원회 구성 오는 12월말 토목공사 착수에정

동국학술문화관(가칭) 건립을 추진중인 학교당국은 지난 22일 설계회사인 간성종합건축사(주)와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관련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관례, 구매와 중심의 실무팀을 꾸려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초를 전후로 설계

자문위원회를 진행할 자문위원회의는 관리처장 민태진(화학)교수를 위원장으로 김경진(건축학), 이문보(건축학), 김성규(토목), 정재명(전기공학), 오원배(미술), 김홍우(연영)교수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공사계획에 따르면 기본설계가 끝나는 올 12월말 토목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설계 및 토목설계와 그에 따른 세부공사는 내년 중반 기이후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동창회장 씨의 축사순으로 이어진다.
제34회사시 최종합격 송인만·김제원등문
고시반 지도위원회(지도교수=이순용·법학)가 지난 26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제34회 사법고시 3차시험에 송인만(법학·81학번)등문과 김제원(경주캠퍼스 법학·82학번)등문과가 각각 최종합격했다.
또한 제10회 군법무관 최종시험에 김경주(법학·82학번)등문이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 사법고시에 1명이 최종합격한 것과 비교해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윤주익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헌정식

“שלום
윤주익
(식품공
학)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헌정식”
이 오는
30일 오후 6시30분 호텔 신라(2층 다이내스티룸)에서 교수·제자 및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헌정식은 김영전(대학원 박사과정)의 사회로 윤교수 약력보고 및 가족소개, 논문헌정, 민병권 총장, 박상대(서울대 교수), 이학태(식품공학과장)

직원노조 등반대회 오는 31일 삼악산서

서울캠퍼스 직원노조(위원장=장윤·관제과)에서 개최하는 ‘조직원 등반대회’가 오는 31일 강원도 춘천군 삼악산에서 열린다.
조직원 7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등반대회는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 정각원 앞에서 정각원 후 학교버스 및 승용차를 이용해 행사지인 삼악산으로 출발한다.

제7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본사에서는 東國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 문단을 이끌어 나갈 청년 文才를 발굴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7회 東大文學賞’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詩 部 分 : 3편 내외
小說部 分 : 60대 내외(200자이외 기재)
評論部 分 : 60대 내외(200자이외 기재)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 1992년 11월 9일(월) ~ 13일(금)
◇시상
· 시 部 : 본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 소설 部 : 본상 25만원, 장려상 20만원
· 평론 部 : 본상 25만원, 장려상 20만원
◇심사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며 심사결과와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 1992년 11월 25일 동대신문 紙上
◇작품 제출처 : 본사 총무부
※제출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동대신문사

개설강좌 폐강내규 개정 전선과목 8명으로 조정

학교당국은 지난 19일 교무위원회를 통해 학사내규를 일부개정·통과시켰다.
이날 개정된 학사내규는 ‘제11조 개설강좌의 폐강’부분으로 필수과목이 아닌 경우 수강신청 학생수의 인원을 조정할 것(단, 입학정원이 30명이하인 학과는 6명)으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내규는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서북권 생활문화 한미당 올바른 전통문화 계승 위해

본교를 비롯한 34개 학교 학생 복지(인간)위원회의 모임인 서북지역학생(인간)복지위원회의 연합(이하 서북권 위원장=황금남·건대인문복지위원장)은 올바른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대학로 생활문화 한미당’을 오는 31일 오후 2시 혜화동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한다. 관련기사 12면
우리 문화 보급과 환경보호 홍보에 중점을 두고 치러지는 이번행사의 취지에 대해 본교 학부위 위원장 권희선(일 4)

보리수

책 읽는 계절이 따로 있을까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래서 이런 가을이면 ‘남자는 모름지기 다섯 수에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이 가스가 뜬다’는 옛 경구(警句)들이 새삼스러워지기도 한다.
남성, 여성을 가릴 필요도 없이, 현대인들에게 독서가 중요한 일임은 더 말할 바가 못된다. 폭넓은 지적 탐구와 다양한 정신 자양의 성취는 그만큼 우리들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풍부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책을 통한 무수한

가르침들이 있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가히 바다에 비유된다. 드넓은 가르침의 바다(敎海)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모은 것이 방대한 양에 달하는 대장경이다.

불교의 공부는 이처럼 맑은 경전들을 읽는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끝내는 그러한 방법의 공부도 완전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문자와 언어란 한계가 있게 마련이어서, 어차피 진리의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단계 더 높은 공부랄까, 눈(肉眼)으로 읽는

책이 아닌 마음(心眼)으로 읽어야 할 책이 권장되기도 한다.

저마다 지닌 한 권의 책이 있다/ 종이와 먹으로 된 게 아니라/ 펼쳐 보아도 글자 없지/ 언제나 휘황한 글씨를 속에는 다양한 지식이 담겨 있다. 그속에 길이 있다/ 고도 읽힌다. 그런 책들을 많이 읽지 않아서 걱정이라는 소리도 우리는 항상 듣고 있다. 그런만큼 이 독서의 계절에 책 읽기를 권하는 한미당임 생각해라 이유가 없지만, 이와 이런 마음으로 읽자고 말하고 싶다.
사람들이 지식이 넘치면서도 지혜가 모자라는 것, 민중하고 유용하게 처신하면서도 바른 길(正道)을 모르는 것, 이런 일들은 결코 책을 적게 읽어서가 아닐 터이다. 많이 읽되 읽지 않는 것으로 집적 만족해 하고, 독서하되 눈으로만 읽고 마는 때문이 아닐까. 문자와 언어로된 책이나, 진실로 마음의 눈으로 읽을 일이다.
李 逢 春

마음으로 읽는 책

공부를 문자와 언어에만 의존하지 않는 선사(禪師)들의 계승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지닌 한 권의 책, 저마다 마음을 읽어야 할 책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마음으로 읽는다. 책을 읽는 것은 마음을 읽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은 마음을 읽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은 마음을 읽는 것이다.

성명서

경부고속전철의 경주캠퍼스 통과노선안에 반대한다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경제발전의 동맥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이 문화유적도시인 경주의 문화재를 훼손하고 대학의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지역주민과 전공국민은 경악을 금 할수 없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를 통과하는 소위 ‘비교노선’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합리적인 ‘기본노선’을 두고 국고부담 무거운 캠퍼스 통과하는 잘못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자료(92.10)에 의하면 이미 ‘기본노선’을 채택한 당국이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를 지나가는 ‘비교노선’으로 변경하고 있다. 10km나 연장우회하여 1,116억원의 추가건설비와 연간운영비 14억원을 낭비하면서까지 굳이 대학교육환경 파괴하는 노선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수 없다.
3개동의 교육시설과 한·양방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철거되는 등 캠퍼스 40%이상의 교육기능이 상실되는 ‘비교노선’은 인정할 수 없다.
- 문화예술도시 경주의 자존심을 외면한 문화재훼손의 노선은 있을 수 없다
신라천년의 고도로서 자긍심 높은 경주가 자랑삼고 있는 역사적 유물인 김유신묘, 태조무열왕릉, 진흥왕릉, 오성, 서천 등의 문화재를 훼손하는 ‘비교노선’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저명한 건설비와 문화재 보존에 유익한 ‘기본노선’을 포기하고 특정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 경주시의 생활환경 파괴하고 도시발전 저해하는 노선은 수용할 수 없다
‘비교노선’으로 고속전철이 통과한다면 그로인하여 도심은 동서로 분리차단되며 장기적 발전의 불균

형을 초래할 뿐더러 소음과 진동 등으로 주거환경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온다. 신라 천 년 고도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삭막하고 살벌한 고가철도 등으로 불쌍사나운 도시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 경주시의 핵심적인 대학교육과 의료복지시설을 파괴하는 ‘비교노선’을 폐기하라
1979년 경주에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경주캠퍼스는 8,000여 학생의 배움의 터전이며 지역사회의 자랑이다. 뿐만아니라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그리고 각각의 부속병원이 이 지역 의료복지시설의 으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을 단순히 파괴하는 ‘비교노선’은 3년의 교수, 직원, 학생과 전지역 주민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을 것이다.
- 경주역 위치가 변경된 이상 캠퍼스 통과노선안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비교노선’을 주장하던 당국의 계획은 이미 전철역 위치설명회(92.10.13)에서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기본노선’에 계획된 ‘북동축’으로 바뀌기로 당국은 약속하였다.그렇다면 ‘비교노선’을 계속하여 고집하지 말고 본래의 ‘기본노선’으로 환원함이 마땅하다.
- 대학교육 깨뜨리는 ‘비교노선’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전공국민의 자존심이며 지역주민의 긍지이다. 대학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온 우리모두는 금번 경부고속전철의 캠퍼스 통과노선인 ‘비교노선’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이에 당국은 무리한 노선 추진으로 인해 격양된 전공국민과 지역주민은 물론 2천만 불교인과 10만 동문들의 분노를 직시하고, 즉각 ‘기본노선’으로 환원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1992년 10월 28일

동국대학교 교무위원회/교수회/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

'배우는 이의 권리 되찾을 때'

강의평가제 실현-민주적 교수영입 필요

88년 학원지주화후배 이후 동 대학의 지주적이고 민주적인 모습들이 느껴지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된다. 그중에서 민주적 교수채용에 대한 내용은 우리들의 배우는 권리와는 별개라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고 앞으로 그 사실은 동대, 아니 이 사회의 민주적 풍토가 뿌리내릴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살이(?) 민주적 교수채용이라는 부분을 기본하고자함은 여전히 동대에 암묵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교수채용에 있어서의 비민주적, 부정적 요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도 일문과에서는 학사부 8개항에 일각한 민주교수 채용을 위한 공개강의를 1차, 2차에 걸쳐 진행했고 그후에 교수·학생들의

공개적 심의와 논의를 거쳐서 인정한 교수들 학교수에 올랐으나 이러저러한,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로 우리 모두의 의사를 묵살하고, 현재 일어일문학과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모교수로 임명했다.

이에 일어일문학과 학생회는 부당한 처사로 임명된 모교수를 인정하지 않고 분학과의 강좌설정도 절대 수용하지 않았기에 모교수는 지금껏 교양강좌 6학점으로 3년의 교수생활을 했으나, 학교수의 책임용이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승진과 더불어 분학과의 교수로 재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재임용과정은 그 본래의미를 잃고 동대에서는 학교수의 임직을 옹호하는 제도란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의평가

일문클럽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민화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무관한 글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인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260-3491.

잔디밭·분수대 관리 소홀 학내 환경개선에 관심을

대학에 들어오기 전 내가 가장 동경했던 잔디밭에 앉아서 이야기하거나 책을 읽는 대학생들의 모습이였다.

그만큼 대학가의 이미지는 젊음이 넘쳐나는 푸르며 활기찬 잔디밭일 것이다. 그러나 입학 후 나를 제일 실망시킨 것이 바로 잔디밭과 분수대였다.

그다지 넓지도 않은 잔디밭인데도 머리털 빠진 것처럼 뜯겨져서 나뭇잎이 깔려서 걸을 때마다 밟히는 모습이 정말 가련하였다.

그 잔디밭이 잔디밭을 제외하고라면 동대 전체는 까만 아스팔트로 도배되어 있어서 여름엔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다.

그런데도 교정 한가운데에 있는 분수대는 더러운 물을 머금고 항상 입을 다물고있다. 분수는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을때가 가장 맛있다. 그런데 물에 들어서 물결은 분수를 본 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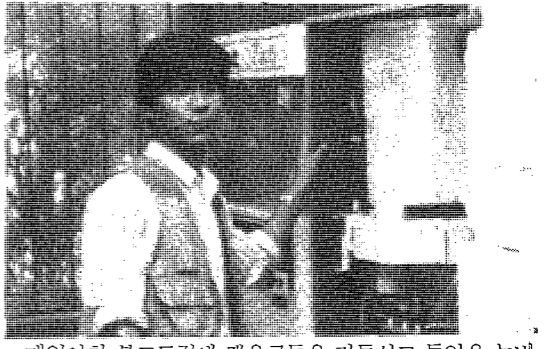
그리고 시급히 보수되어야 할 잔디밭은 더 황폐해지고 있다. 좁은 잔디밭이면 가꾸기도 더 편리할텐데...

지금까지 무관심으로 방치되어지고 동대의 잔디밭과 분수대를 예쁘게 가꾸겠다고 공약을 하는 후보는 없을까?

이번 총학생회에서 학우들에게 이런 것지만 소중함 약속을 하는 후보가 있었으면 한다.

송 봉근 <사범대 국교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콩트덕에 캔을 흔들며 가꾸고 동학을 누비는 사람. 우리에게 '너머머리 이저씨'로 더 유명한 학생복지위원회 자판기 관리 담당직원 권영준(22세) 씨다.

지난 3월 친구의 소개로 자판기 관리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권씨는 "처음엔 힘들었지만 차츰 적응해 가면서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특히 같은 세대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즐거워요"라며 흐뭇해 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커피에 실망이나 크림이 안들었다고 커피잔을 자판기 문에 올려놓는 덕(?)에 문을 열다가 커피를 뒤집어 쓴 적도 있다며 이때는 학생들에게 섭섭함까지 느낀다.

현재는 자판기에 대한 불만 해소를 위해 남은 자판기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중이다. 그러나 "새 자판기 20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가 열심히 뛰어서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싶어요"라며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집념을 새삼 밝힌다.

"여름엔 캔을 소비가 많이 된다고 짜증도 나지만, 지나간 학생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수고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줄때면 힘든 것도 다 잊게요"라고 말하는 그는 음료수 박스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늘도 동학을 뒀다.

<김>

여러분의 도움이 아학을 살립니다

여러분 / '아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학은 사회적, 교육적 모순에 의해 일어난 상처를 치유하려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가정의 어려움, 교육제도의 불합리한 등으로 인해 인건이 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근로청년 및 나이든 사람들이 다시한번 공부할 기회를 찾은 곳입니다.

이런 취지의 아학 운영이 저와 같은 몇몇 학생들의 힘으로서는 물질적 토대의 어려움을

느껴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희 '신당아학'은 중구 광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9년 7월 17일에 개교한 이후 최근 운영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작년 11월에 한차례 위치를 옮겼고, 다시 일반건물 지하로 이전하면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발등의 불만 끈 것일 뿐 썩는 여전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학의 운영비, 건물임대료, 기타 행사비 등 상당히 많은 운영비 등이

학우들 외면한채 논쟁일과 과내 활발한 토론 요구

9월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린 선거연기결정이후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다. 많은 논리와 근거 속에서 서로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수한 논의의 틀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민주주의라는 가장 일반적인 명제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그 근거가 어떤 것인지, 어떤 학우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빠진 비민주적 방법이었는지,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어디에 서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올바른 선거시기에 대한 고민과 이를 위한 민주적 방법이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총선위의 결정이후 대다수들은 다시한번 민주주의에 대한 기만이었다. 자신들의 의견이 학우들 모두의 의견인양 선전하여 11월선거를 주장하며 자신들은 비민주적 선전에 대항하는 민주적 학우들이라는 자화상을 과시했다. 학생회에 활동을 갖고 애정으로 학생회 활동을 하려는 일반학우로서 듣는다. 나는 11월 선거에 대한 어떤 의견도, 토론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공청회를 했다고는 하나 학우들을 중심으로 세우지 못했기에, 우리는

그 어느곳에서도 힘을 찾을 수 없다. 지열했던 대다수 논쟁이나 쇠파이론쟁을 주로 삼은 지난 26일의 공청회는 끝났다. 이미 선거시기문제가 공론화된 이상, 과내에서의 각부서별 토론을 활발히 해서 학우들을 중심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원 봉일 <문과대 사학과>

동문칼럼

하루는 아개 아침드라마에 모교의 캠퍼스가 나타나고 약간은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무슨 말이냐고 하자 야야 활동은 모교에서 한 도야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주인공이 앉아있는 벤치 하나까지도 어디에 있던것이였는지 알았더라고, 그래서 대학이 젊이 세상 그리움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이다. 또 학생시절 많은것을 꿈꾸었으나 이룬것보다 이루지 못한것들이 더 많아 조금은 후회스럽다고. 많은 꿈을 품었던 학생시절이 참 좋았다고 소년같은 얼굴을 하는 것이었다.

나의 대학시절... 이젠 새바늘 내 기억속의 동학의 교정 나는 어린꿈을 꾸었던가. 온갖 꿈들이 펼쳐져 있었

던 곳. 그러기에 진리와 정의가 중요한 가치관단의 척도로 요구되었던 젊음의 미명. 사회의 못된 기운이 우리의 젊음을 조급이라도 퇴색시킬까봐 몸부림치며 지키던 진리의 타진. 그러기에 나에게 동학이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으며 서로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간이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고 그들과



이해하는 것과 이해받는 것

내가 어떻게 어우러지느냐가 내 대학생활 내내 과제였던것으로 생각한다.

세상을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은 어떠한 논쟁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는다. 사회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실현도 결국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실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가정, 학교, 직장 등의 어떠한 형태의 조직속에서든 얽히고설린 인간관계를,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창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이해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해받을 것인가.

계실정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본래가 외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외로운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로 인해 자기를 이해받는 가운데 사그라들 수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의 직장생활속에서 겪는 갈등은 항상 그렇듯이 딱 찌어

진 조직사회의속에서 느껴지는 소외의 문제였다. 조직속에서 소외되고 사람으로서 소외될때 자신의 존재마저도 부정되는게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까지도 느껴질때가 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올바르게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겠다고 다짐한다. 무관심속에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과 더불어 내가 행복하여 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 한테 달려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 당당해질것이다. 내가 세상에 나 혼자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얼마나 슬픈일인가.

김영철 <나산실업 경영관리실 대리·경계88층>

많은 정보로 학교생활의 어려움 해결

지난호 동대신문에서는 93대입 홍보 전략에 대한 기사와 교육정책의 변화에 대한 간략한 논지가 실렸다.

대학입학과 동시대에 접어들어 많은 문제점이 대학입학과 함께 사회 진출에 대한 고민이 들을 생각할때, 대학이라는 장소는 어떤 곳이어야 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업을 추구하고 학문(진정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지성(지성)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자기와 현실을 고민

하고 대학의 순수성을 자랑 삼아 자기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활발히 생활하는 것이다. 또한 학문의 연마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자신에게 발전을 주어야 하며 보다 올바른 지아를 성립시키는 기반이여야 한다. 그런 후에 사회 진출에 있어서 자신이 공부했던 분야 또한 주체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된다.

그리고 사회인이 되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 이것이 대학에서 가져가야 할 부분이라

고 생각한다.

또한 대학원생의 한 부분은 차지하고 있는 신문이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 중요할것은 자기가 뜻했다. 학교 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보다 많은 정보로써 해결 될 수도 있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는 대학생활을 보다 즐겁게 주어야 할 것이다. 작자 이러한 입장에서 이번 기사들은 현실과 자신과 대학을 고민했던 학생들에게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장 영주 <문과대 독문과>

목욕골 동학 광장 은방골

- 축하합니다**
- 국문과 86학번 김민성군의 취직을 축하합니다.
 - 국문과 졸업반일동
 - 도현아 / 생일 축하합니다.
 - 사회학과 시사토론반
 - love, 비
 - 당신이 태어난 날, 축하드려요.
 - 언제나 당신을 생각하는 문
 - 77번아 / 생일 축하합니다.
 - 송인민 선배님의 사립고시 최종합격을 축하드립니다.
 - 계산식 Team
 - 법학과 92학번 주준익군의 생일을 한결없이 잊지않고 축하합니다. 춘사야 살때가 더더욱 생일 빵은 피할수 없답니다.
 - 38기 일동
 - 행정학과 대문도, 행정4 정아, 시현 잘바라.
 - 선배
 - 10월에 생일 맞이했던 92학번 동기 대석, 유경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 F·B 회원관리
 - 정진오빠, 승필오빠 축하드립니다. 언젠나 학우들을 생각하는 '오빠'같은 분이 되어주세요.
 - 애뵤후배 윤
 - 은아누나 생일 무지 축하드려요.
 - P.S: '민미연'도 얼마남지않은 기간 열심히 이끌어 나가길.
 - 후배
 - 국민윤리학과 오서방의 귀빠지

- 일문클럽**
- 장소 : 본교 다함판 2층
 - 회비 : 2만5천원
 - 소수회원(?)
 - 경향행정학과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재동대 작전전경 593기·674기 일동
 - To, 교만이 선배님
 - 42번째 Birthday경 회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Time(티에) -
 - 연경이의 '92추계대학 겸도연맹진 준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92230023의 생일을, 늦었지만 정말로 많이 축하해
 - 34기
 - 진영선을 아는 모든이와 함께 생일을 축하한다!
 - 별
 - 수고하셨습니다
 - '백상발표회'를 멋지게 마친 15기선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6기들 앞으로 확실히 밀어주세요.
 - 백상16기 일동
 - 지리교육과 추계답사보고회를 멋지게 마칠을 축하합니다. 영훈, 해민아, 태형형, 승훈형, 왕 수고 하세요.
 - 지리교육과 92 포 개매들
 - 일문클럽
 - 여수항우회 카니발이 오는 11월21일 열립니다. 재동대 여수항우회 동문선배님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시 : 11월21일(토) 오후4시

- 은방골**
- 영문4년 우리모두의 합력을 기원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 '87 감자와 수태지
 - 해동성 운영할 열심히 하고 군대에 계신는 동안 형우에는 92동기와 일문과가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주세요. 형부님도 몸 건강히.
 - 해동성을 너무나 사랑하는 일문 92학번
 - 다님들여러분 힘내세요
 - D.D.D를 사랑하는 '92가
 - 선부부여러분. 며칠남지않은 시험때문에 운동이 힘들지만 모두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 7271·조 73기·석
 -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었던 것이다. 정기공연에 정진은 92학번 어인방에게 무한한 용기를
 - 88선배 드림니다
 - 그리고...
 - 우리과의 소모임인 R/C가 앞으로 더많은 발전이 있길 바라면서...
 - 신세계를 향한 도약(7기공과) 권경규
 - 11월1일, 8일 15일...이후 공개 채용시원을 보는 모든 4학년들에게 행운의 영신이 함께하길.
 - 물대 사학님 한 화우가
 - 행정학과 미녀, 행정4 명숙 언니 준우고사 1등하시요 화이팅!~
 - 후배가
 - 세요, 축하한다.
 - 백상형제 큰형 태석, 중간성령 막내 도환
 - 10월 29일은 인류의 빛 석천 대방광불의 탄신일을 축하드립니다. '남이 오심에 하늘에 꽃비가 내리고 어대 따우는 소리 들렸어요'
 - 東權見·포탄이만
 - 연우야! 늦게나마 다시한번 생일 축하한다. 꼭 한탄 메스점을 다 보고 싶어하는 이 학우에게 행운이 있길.
 - 친구(?)
 - 광선의이 2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 生物 2년
 - 철학과 선배, 그리고 동기 여러분 11월 3일은 도란이의 탄신일입니다. '가고파'로 같이 '이도판'으로 같이 모르지만 많이 많이 참석해 주세요.
 - 축하해 주세요. 日文의 모질이 영선이랑 새장이 유영이, 그리고 예쁜이 한쌍이 다시 결정했어요!
 - 네진마미
 - 10월30일 조용수선배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 한창
 - 10월 30일은 국사학과 대모이자 학생회의 총일정인 정민이의 생일입니다. 정민아! 불타 준비하라 수고했어, 남은 임기 동안 VICTORY하자.
 - 이주 오래된 연인들
 - 수고하셨습니다
 - 소년·소녀 가장들이 불교학의 일일찾기를 찾아주시는 동국의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두운 곳에

경부고속철도 경주캠 관통 반대

이제 총학생회는 경부고속철도의 노선 및 역사설정 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당초 기본노선인 비교노선으로 전환되어 채택 됨으로써 본교에 미칠 교육환경과 부속 한양병원, 체육관, 신축중인 자연과학관의 철거 등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주장, 1만학우가 단결하여 비교노선의 불합리성과 기본노선으로의 전환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것을 밝혔다.

또한 불교학과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경주캠 관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주캠 관통은 경부고속철도의 노선 및 역사설정 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당초 기본노선인 비교노선으로 전환되어 채택 됨으로써 본교에 미칠 교육환경과 부속 한양병원, 체육관, 신축중인 자연과학관의 철거 등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주장, 1만학우가 단결하여 비교노선의 불합리성과 기본노선으로의 전환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것을 밝혔다.

또한 불교학과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경주캠 관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주캠 관통은 경부고속철도의 노선 및 역사설정 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당초 기본노선인 비교노선으로 전환되어 채택 됨으로써 본교에 미칠 교육환경과 부속 한양병원, 체육관, 신축중인 자연과학관의 철거 등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주장, 1만학우가 단결하여 비교노선의 불합리성과 기본노선으로의 전환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것을 밝혔다.

또한 불교학과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경주캠 관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전문학 연구의 중요성

‘오늘’을 살리기 위해 ‘어제’를 살피지 않을 수 없어

고전이란 말이 함의하고 있는 범위는 너무 다양하고 넓다. 대개는 고상하고 품위있고 고급스러운 뜻으로 세고 있으나 고전문학이라는 말에 와서는 그런 기풍어린 이미지 대신 어둡고 낡고 딱딱하고 어려운 함의가 서적적으로 이미치화한다.

고전문학이 언제부터 이처럼 배안시되다시피하고 오늘 우리의 일상과 무관한 유품으로 돌변했는가. 모 르긴해도 왕성하게 서구 문학작품을 본뜨고 그 나름의 이론적 바탕을 궁리하던 끝에 일부 문인들 안에 서 자기합리화로 비롯된 전통단절론이 나타나면서 고전문학의 모습은 한결 초라하게 되져 갔다 한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의 뿌리 돌아보기 정신이 고조되면서 고전적 의의와 더불어 자기문화의 물감을 주조했으나 그 시대가 지나자 대세는 역시 서양문학의 입문으로 치닫고 말았다.

시대현상은 자기 동기가 숨어있고 나름의 필연성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흐름안에서도 우리는 구차스럽지만 우리시대 고전문학이란 무엇이 며 어떠한 의미였으며 저러한 점을 살 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넓게는 우리시대 국문학자 각자에게 돌리는 돌을 읽 수도 있고 좁혀보면 한때 고전문학의 선봉에서 서서 뚜렷한 결실을 남긴 동국대 국문학연구회의 후학으로서 영 영광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나약해진 오늘의 위상을 반성해보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다.

고전 문학을 포함한 전통적 유산의 보존과 연구가 어찌된 우리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해주고 미래를 밝혀주는 구실을 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겠으나 지금과 같이 현대문학연구로 사들이고 풀고 그나마 고전문학연구는 전공자 몇몇만 은밀히 향수하는 선에서 그치고 마는 한 우리가 바라는 건실하고 근원적인 국문학연구는 유원하다. 이의 극복을 위해 주의를 돌려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평소의 원인을 알면 치료는 의외로 쉬워질 수도 있다.

점을 상기하면서 말이다. 국문학을 비롯해서 어떤 학문든 출발에서 연구자들의 ‘오늘’ ‘어제’의 문제가 다른 무엇보다 크게 개제한다.

이점에서 고전문학에 대한 우리시대의 냉담한 반응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주 현대적인 대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은 케고고자 애를 쓰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는 ‘오늘’에만 한정되어 이루어질 수 없다. 곧바로 이전 시대로 돌아가 그 ‘어제’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또 연구대상이 실사 현대성과는 무관한 고전 문학이더라도 ‘당대적’이 아니라 얼마든지 ‘현재적’으로 그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연구자의 시각과 현실적 범위에 따른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에 있어 고전문학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새로운 기대지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방법론에 대한 신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관’으로 오해도 고전문학연구의 활화를 가로막는 한 요소가 아닐까.

실증적 작업은 어느 학문든 제일차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당연한 태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고전문학 연구자 중에는 실증주의와 실증적 작업을 혼동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른 시기에 벌써 저 현란한 서구문학과 다양한 문헌이론에 맞선 제2의 연구자들에게 기성세대가 보여준 그 맹목적인 실증주의는 과연 문학연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해 주기 충분하며 마침내는 고전문학의 동기유발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까지 이어 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가성 연구자들은 애써 고전문학의 중요성을 강변하기보다 학문의 방법과 세계관의 통일성이라는 원칙에서 차분하게 그를 주지시키고 학생들 역시 주제적 문헌이론을 추구하는 뜻을 갖고 고전에 주위를 기울일 때 더 이상의 고전문학부흥론, 위기론은 사라질 것이다.

김승호

<본교교사·국문학>

I. 서론

향가는 삼국유사 소제 14수와 균여 전 소제 11수 합해서 25수 뿐이다. 25수의 향가의 내용을 학자들은 불교적인 면, 토속 신앙적인 면, 개인 서정적인 면 등으로 파악하려고 하며 대체로 향가를 불교적인 내용을 기반을 둔 것이라고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삼국유사의 작자가 一然이라는 스님이고, 향가 25수의 작자가 대부분 승려이거나 불교와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향가를 해석하는 데 있어 불교적 관점에 치우친 듯하다는 기인한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충성과 신의의 유교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배경설화와 시가를 연구하여 시가를 재검정하였다. 또한 유교정신을 가지고 있는 시가의 제목이 원방하는 노래라는 뜻의 ‘원가’보다 增補文獻備考에서 밝혀진 ‘宮庭栢歌’라는 제목이 더 타당함을 밝히려 한다.

II. ‘怨歌’의 배경기류 분석

원가는 ‘삼국유사’ 卷第五 雜錄 第八 信忠掛冠條와 ‘增補文獻備考’ 卷百六 樂考 十七에 배경설화와 같이 전해오고 있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宮庭栢 孝성왕이 아직 왕위에 오르 기 전 어느 날 金信忠와 더불어 이 잣 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었다. 왕이 말하길 ‘잇날 나는 너를 잊지 않을 터이니 너 또한 정조를 바꾸지 말라’ 그리고 이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 얼마 후 왕위에 오른 뒤에 공신들에게 벼슬자리를 주면서 신승을 뱀다. 이어 신승이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이니 잣나무가 갑자기 말라 버렸다. 왕이 듣고 놀라 ‘과공을 잊을 뻔했구나’ 라고 말한 후 그에게 벼슬을 주니 잣나무가 다시 소생하였다.

향가는 시가 그 자체로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를 포함하고 있는 배경설화와의 연관성이 어느 시대의 시가보다 더 긴밀하다. 삼국유사의 배경설화가 시가를 짓게 된 동기나 그 주제를 밝히고 있고, 작자의 생애와 연관하여 쓰여진 것도 있었기에 시가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원가를 포함하고 있는 信忠掛冠條는 작자의 생애보다는 시를 짓게 된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시가의 내용분석에 용이함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배경설화의 ‘他日若忘卿 有如栢樹’와 ‘王即位賞功臣 忘忠而不第之 忠怨而作歌’ 부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여 시가의 연관성을 찾아 원가의 정신적 바탕을 찾아 보았다.

분석방법은 작품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어느 특정 분야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작자의 신분, 노래 제작 동기, 시가의 검토 등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작자의 신분

원가의 작자는 신승이다. 삼국유사의 향가 14수에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배경설화와 연관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 一然이 삼국유사를 기록할 당시 信忠이라는 이름이 상임된 것이라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원가와 관련된 삼국사기, 增補文獻備考에 모두 신승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 주장을 수락하기 어렵다. 그러나 배경설화와 등장인물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은 작자의 성격이나 왕과 맺은 신분을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승이라는 이름이 신하로서 왕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충성을 보였다는 배경설화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 그의 이름이 배경설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신승은 이름처럼 유교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중수가 “그의 이름이 ‘信’字와 ‘忠’字로 된 것을 볼 때 그의 家譜는 儒家의 系出이라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그의 집안이 유교를 신봉하기 때문에 왕을 충성으로 보좌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 기원이 이름에 담겨있다고 할 수 있고 신승은 그의 집안의 기원을 단축시키고 있다.

그런 유교의 정신이름으로 드러 내고 있는 신승의 신분에 대해 알아 보겠다.

신승의 성이 ‘增補文獻備考’ 卷百六 樂考 十七에 ‘金(孝成王在潛邸 嘗與金信忠)’으로 명기되어 있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는 배경설화와 연관성이 어느 시대의 시가보다 더 긴밀하다. 삼국유사의 배경설화가 시가를 짓게 된 동기나 그 주제를 밝히고 있고, 작자의 생애와 연관하여 쓰여진 것도 있었기에 시가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원가를 포함하고 있는 信忠掛冠條는 작자의 생애보다는 시를 짓게 된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를 잘 드러내고 있다.

III. 결론

제30회 본사 학술상 인문

궁정백가(宮庭栢歌)와 ‘怨’의 문제

백가가 같이 정래를 얘기하며 바둑을 둘 수 있는 상황은 신승과 왕이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어려운 상황이다. 벼슬이 없는 일반인이 궁안에 들어가 기도 힘든 상황에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신승과 효성왕이 가까운 친족이라는 설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승은 효성왕의 가까운 친족 혈통을 이어 받은 집안 출신이며, 유교 정신을 갖게 신분하는 유학자였다. 이러한 그의 신분은 후에 임금 을 충성으로 보필할 목적으로 건언의 시를 짓게 한 밑바탕이 된다.

노래를 짓게 된 동기

신승이 원가를 짓게 된 동기를 배경설화에서 찾으면 ‘잇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대목이다. 효성왕이 신승과 함께 잣나무에 바둑을 하지 않았다면 隔數月 王即位賞功臣 忘忠而不第之라는 원인을 제공하였어도 신승이 노래를 지어 부를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가의 최초의 발단은 잣나무 아래서 한 약속이라 하겠다.

배경설화의 ‘잇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는 論語 八佾篇 十九의 ‘군주가 신화를 부리는 데는 예(禮)를 지키셔야 하며,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데는 진심을 다해야 하는 줄 아니이다’라는 말처럼 신승이 신승을 禮로서 대할 것이라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백가가 같이 정래를 얘기하며 바둑을 둘 수 있는 상황은 신승과 왕이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어려운 상황이다. 벼슬이 없는 일반인이 궁안에 들어가 기도 힘든 상황에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신승과 효성왕이 가까운 친족이라는 설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승은 효성왕의 가까운 친족 혈통을 이어 받은 집안 출신이며, 유교 정신을 갖게 신분하는 유학자였다. 이러한 그의 신분은 후에 임금 을 충성으로 보필할 목적으로 건언의 시를 짓게 한 밑바탕이 된다.

노래를 짓게 된 동기

신승이 원가를 짓게 된 동기를 배경설화에서 찾으면 ‘잇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대목이다. 효성왕이 신승과 함께 잣나무에 바둑을 하지 않았다면 隔數月 王即位賞功臣 忘忠而不第之라는 원인을 제공하였어도 신승이 노래를 지어 부를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가의 최초의 발단은 잣나무 아래서 한 약속이라 하겠다.

배경설화의 ‘잇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는 論語 八佾篇 十九의 ‘군주가 신화를 부리는 데는 예(禮)를 지키셔야 하며,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데는 진심을 다해야 하는 줄 아니이다’라는 말처럼 신승이 신승을 禮로서 대할 것이라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백가가 같이 정래를 얘기하며 바둑을 둘 수 있는 상황은 신승과 왕이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어려운 상황이다. 벼슬이 없는 일반인이 궁안에 들어가 기도 힘든 상황에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신승과 효성왕이 가까운 친족이라는 설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승은 효성왕의 가까운 친족 혈통을 이어 받은 집안 출신이며, 유교 정신을 갖게 신분하는 유학자였다. 이러한 그의 신분은 후에 임금 을 충성으로 보필할 목적으로 건언의 시를 짓게 한 밑바탕이 된다.

노래를 짓게 된 동기

신승이 원가를 짓게 된 동기를 배경설화에서 찾으면 ‘잇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대목이다. 효성왕이 신승과 함께 잣나무에 바둑을 하지 않았다면 隔數月 王即位賞功臣 忘忠而不第之라는 원인을 제공하였어도 신승이 노래를 지어 부를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가의 최초의 발단은 잣나무 아래서 한 약속이라 하겠다.

배경설화의 ‘잇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는 論語 八佾篇 十九의 ‘군주가 신화를 부리는 데는 예(禮)를 지키셔야 하며,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데는 진심을 다해야 하는 줄 아니이다’라는 말처럼 신승이 신승을 禮로서 대할 것이라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백가가 같이 정래를 얘기하며 바둑을 둘 수 있는 상황은 신승과 왕이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어려운 상황이다. 벼슬이 없는 일반인이 궁안에 들어가 기도 힘든 상황에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신승과 효성왕이 가까운 친족이라는 설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승은 효성왕의 가까운 친족 혈통을 이어 받은 집안 출신이며, 유교 정신을 갖게 신분하는 유학자였다. 이러한 그의 신분은 후에 임금 을 충성으로 보필할 목적으로 건언의 시를 짓게 한 밑바탕이 된다.

노래를 짓게 된 동기

신승이 원가를 짓게 된 동기를 배경설화에서 찾으면 ‘잇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대목이다. 효성왕이 신승과 함께 잣나무에 바둑을 하지 않았다면 隔數月 王即位賞功臣 忘忠而不第之라는 원인을 제공하였어도 신승이 노래를 지어 부를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가의 최초의 발단은 잣나무 아래서 한 약속이라 하겠다.

배경설화의 ‘잇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는 論語 八佾篇 十九의 ‘군주가 신화를 부리는 데는 예(禮)를 지키셔야 하며,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데는 진심을 다해야 하는 줄 아니이다’라는 말처럼 신승이 신승을 禮로서 대할 것이라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백가가 같이 정래를 얘기하며 바둑을 둘 수 있는 상황은 신승과 왕이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어려운 상황이다. 벼슬이 없는 일반인이 궁안에 들어가 기도 힘든 상황에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신승과 효성왕이 가까운 친족이라는 설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승은 효성왕의 가까운 친족 혈통을 이어 받은 집안 출신이며, 유교 정신을 갖게 신분하는 유학자였다. 이러한 그의 신분은 후에 임금 을 충성으로 보필할 목적으로 건언의 시를 짓게 한 밑바탕이 된다.

노래를 짓게 된 동기

신승이 원가를 짓게 된 동기를 배경설화에서 찾으면 ‘잇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대목이다. 효성왕이 신승과 함께 잣나무에 바둑을 하지 않았다면 隔數月 王即位賞功臣 忘忠而不第之라는 원인을 제공하였어도 신승이 노래를 지어 부를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가의 최초의 발단은 잣나무 아래서 한 약속이라 하겠다.

배경설화의 ‘잇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는 論語 八佾篇 十九의 ‘군주가 신화를 부리는 데는 예(禮)를 지키셔야 하며,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데는 진심을 다해야 하는 줄 아니이다’라는 말처럼 신승이 신승을 禮로서 대할 것이라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백가가 같이 정래를 얘기하며 바둑을 둘 수 있는 상황은 신승과 왕이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어려운 상황이다. 벼슬이 없는 일반인이 궁안에 들어가 기도 힘든 상황에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신승과 효성왕이 가까운 친족이라는 설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승은 효성왕의 가까운 친족 혈통을 이어 받은 집안 출신이며, 유교 정신을 갖게 신분하는 유학자였다. 이러한 그의 신분은 후에 임금 을 충성으로 보필할 목적으로 건언의 시를 짓게 한 밑바탕이 된다.

노래를 짓게 된 동기

신승이 원가를 짓게 된 동기를 배경설화에서 찾으면 ‘잇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대목이다. 효성왕이 신승과 함께 잣나무에 바둑을 하지 않았다면 隔數月 王即位賞功臣 忘忠而不第之라는 원인을 제공하였어도 신승이 노래를 지어 부를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가의 최초의 발단은 잣나무 아래서 한 약속이라 하겠다.

배경설화의 ‘잇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는 論語 八佾篇 十九의 ‘군주가 신화를 부리는 데는 예(禮)를 지키셔야 하며,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데는 진심을 다해야 하는 줄 아니이다’라는 말처럼 신승이 신승을 禮로서 대할 것이라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유교적·주술적

‘잣나무’ 설화

그의 이름 신승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처럼 그는 예와 충으로 임금을 사랑 하는 사람이다. 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신승이 노래를 지어 부른 동기는 예와 충이라는 두 마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승이 노래로 건언을 한 이유가 신과 왕의 마음뿐이라 규정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국가에 충성을 다해 신리를 통일국으로 만든 화합들은 이제 국역에 몰두 바칠 커다란 시간의 책임이 임박하고 있다. 신승이 신승에게 약속을 한 것은 신승을 바라는 나 는 너를 잊지 않을 터이니 너 또한 정조를 바꾸지 말라 하여 나오는 내용처럼 不改貞操 禍 단상이다.

백가가 같이 정래를 얘기하며 바둑을 둘 수 있는 상황은 신승과 왕이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어려운 상황이다. 벼슬이 없는 일반인이 궁안에 들어가 기도 힘든 상황에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신승과 효성왕이 가까운 친족이라는 설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승은 효성왕의 가까운 친족 혈통을 이어 받은 집안 출신이며, 유교 정신을 갖게 신분하는 유학자였다. 이러한 그의 신분은 후에 임금 을 충성으로 보필할 목적으로 건언의 시를 짓게 한 밑바탕이 된다.

노래를 짓게 된 동기

신승이 원가를 짓게 된 동기를 배경설화에서 찾으면 ‘잇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대목이다. 효성왕이 신승과 함께 잣나무에 바둑을 하지 않았다면 隔數月 王即位賞功臣 忘忠而不第之라는 원인을 제공하였어도 신승이 노래를 지어 부를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가의 최초의 발단은 잣나무 아래서 한 약속이라 하겠다.

배경설화의 ‘잇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는 論語 八佾篇 十九의 ‘군주가 신화를 부리는 데는 예(禮)를 지키셔야 하며,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데는 진심을 다해야 하는 줄 아니이다’라는 말처럼 신승이 신승을 禮로서 대할 것이라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백가가 같이 정래를 얘기하며 바둑을 둘 수 있는 상황은 신승과 왕이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어려운 상황이다. 벼슬이 없는 일반인이 궁안에 들어가 기도 힘든 상황에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신승과 효성왕이 가까운 친족이라는 설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승은 효성왕의 가까운 친족 혈통을 이어 받은 집안 출신이며, 유교 정신을 갖게 신분하는 유학자였다. 이러한 그의 신분은 후에 임금 을 충성으로 보필할 목적으로 건언의 시를 짓게 한 밑바탕이 된다.

노래를 짓게 된 동기

신승이 원가를 짓게 된 동기를 배경설화에서 찾으면 ‘잇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대목이다. 효성왕이 신승과 함께 잣나무에 바둑을 하지 않았다면 隔數月 王即位賞功臣 忘忠而不第之라는 원인을 제공하였어도 신승이 노래를 지어 부를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가의 최초의 발단은 잣나무 아래서 한 약속이라 하겠다.

배경설화의 ‘잇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는 論語 八佾篇 十九의 ‘군주가 신화를 부리는 데는 예(禮)를 지키셔야 하며,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데는 진심을 다해야 하는 줄 아니이다’라는 말처럼 신승이 신승을 禮로서 대할 것이라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백가가 같이 정래를 얘기하며 바둑을 둘 수 있는 상황은 신승과 왕이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어려운 상황이다. 벼슬이 없는 일반인이 궁안에 들어가 기도 힘든 상황에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신승과 효성왕이 가까운 친족이라는 설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승은 효성왕의 가까운 친족 혈통을 이어 받은 집안 출신이며, 유교 정신을 갖게 신분하는 유학자였다. 이러한 그의 신분은 후에 임금 을 충성으로 보필할 목적으로 건언의 시를 짓게 한 밑바탕이 된다.

노래를 짓게 된 동기

신승이 원가를 짓게 된 동기를 배경설화에서 찾으면 ‘잇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대목이다. 효성왕이 신승과 함께 잣나무에 바둑을 하지 않았다면 隔數月 王即位賞功臣 忘忠而不第之라는 원인을 제공하였어도 신승이 노래를 지어 부를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가의 최초의 발단은 잣나무 아래서 한 약속이라 하겠다.

배경설화의 ‘잇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는 論語 八佾篇 十九의 ‘군주가 신화를 부리는 데는 예(禮)를 지키셔야 하며,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데는 진심을 다해야 하는 줄 아니이다’라는 말처럼 신승이 신승을 禮로서 대할 것이라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바로 임금은 의리가 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正義忠)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正義)는 약속이요, 신승은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약속일 것이다.

제30회 학술상 입상작 발표
인문과학분야
본 상=△박경진(국교)
궁정백가와 ‘怨’의 문제
장려상=△박종양(철학)
實學思想과 Pragmatism의 비교연구-反 主知主義의 영향을 중심으로
△홍정희(경주국사)
大院君執政政의 민란에 대한 연구-稱兵召亂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분야
해당작품 없음
자연과학분야
해당작품 없음
시상일시: 1992년 10월 28일(수) 오후 3시
東大新聞社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11171-11172 전화: 260-3114
경주캠퍼스: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11171-11172 전화: (0561)770-2114

1993학년도 전기 동국대

일반대학원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한문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기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나. 박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

문과학분야 본상

信忠 = 栢 = 孝成王
忠不變 = 신의 = 禮不變

중심사
1. 문과학
2. 문과학
3. 문과학
4. 문과학
5. 문과학
6. 문과학
7. 문과학
8. 문과학
9. 문과학
10. 문과학

본 시기에 등장하는 잣나무는 효성 왕과 신충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잣나무의 신의를 부각시키기 위해 가을을 등장시키고 있다. 푸르른 잣나무의 잎을 枯落의 계절 가을 속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푸르름의 시작 분위기를 더욱 살이어나고 있다. 외역하면 '질 좋은 잣나무는 가을에도 이슬이 아니 하는구나'
◎汝於夕夕 行齊敷因隱 仰賴願而 矣改衣賜乎 禮多矣也 (나 옛 데 너지 이신 울릴던 나치 겨사은디)
이 부분은 배정설화의 王即位賞功 慶 忘忠而不第之라는 부분과 상통하

만 지금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듯이 말이다. 자연 섭리는 불변한다. 왕이 정도를 걸어갈 때 왕의 실체는 달이다. 그러므로 달이 변한다는 것은 왕 자체가 바뀐다는 말이요 왕을 거부하는 뜻이 된다. 신충이 왕을 원망하거나 미워했다면 당연히 달로 비유를 들었지 만, 신충이 노래를 지은 동기는 충성 이기에 달 그림자에 비유한 것이다. 이윽게 가 말한 것처럼 달 그림자가 내 려 쬐는 곳은 '富庭' 또는 '朝廷'이다. 달 그림자가 내리쬐는 곳에 지나가는 물결에 모래가 움직이듯이 달 그림자 가 흩어진다라는 시구다. 이 시구는 ㉠을 강조 반복하고 있다. 외역하면 '달 그림자 내리쬐는 곳에 지나가는 모래 움직이듯'이라고 되며 특히 흩어 지는 모습을 직유법을 써서 강조하고 있다. ◎號史沙叱望阿乃 世理都之叱逸

이 배정설화의 기록과 노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 가명을 표기하고 있다. 각 학자들의 제목 표기에 대해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信忠栢樹歌>.....小倉進平 <잣나무가>.....홍기문, 김 시열, 김성기 <戀歌>.....양주동, 김중 우, 전규태, 김완진, 최철, 임기중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은 내용의 파악과 상관없이 원가라고 가명을 표기 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라는 가명만 주는 이미지는 그 배정설화의 충성과 신의의 유교적 내용과 달리 임금을 원 망하는 불충과 미움이다. 원래 가명은 노래의 창작동기, 작자, 시적대상, 내용, 형식 등 여러가지 속성 중에 가장 적합한 요소를 들어 그 노래의 특징과 그 노래와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기에 원가라는 제목이 있 어도 배정설화에 부적합하다 하겠다. 필자는 원가의 가명 표기에 있어 增補文獻備考에서 밝힌 富庭栢歌라는 가명을 제시한다. '富庭栢歌에서 栢(잣나무)은 시가의 배정설화에서 없 으면 안될 요소라 할 수 있다. 배정설 화 전체에서 잣나무(栢)의 역할은 크 다 할 수 있는데 효성왕과 신충이 禮와 신의를 잣나무에 맹세하였고, 신충 의 마음을 잣나무가 시든 것으로 대변 하였고, 효성왕의 禮 찾음을 푸르름으 로 표시한 부분 등 배정설화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시기에 있어서 주제가 신의의 충성스러운 마음 이듯 잣나무가 정절과 신의의 이미 지를 가지고 있기에 노래의 특징과 노래의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多栢木'에서 동백도 푸르름의 비 유는 이와 같은 것이다. 이처럼 '富庭栢歌'라는 제목에서 배정설화의 내용과 시가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으 니 가명으로서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가시는 적혀 있지 않으나 삼국유사와 증보문헌비고에 나타난 배 정설화의 일지는 대부분 학자가 인정 하고 있으나 위 노래를 증보문헌비고 에 나오는 '富庭栢歌'라는 제목의 가 명 표기에 근거하여 원가보다는 '富庭栢歌'라는 가명 표기가 타당하다 하겠다.

이 배정설화의 기록과 노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 가명을 표기하고 있다. 각 학자들의 제목 표기에 대해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信忠栢樹歌>.....小倉進平 <잣나무가>.....홍기문, 김 시열, 김성기 <戀歌>.....양주동, 김중 우, 전규태, 김완진, 최철, 임기중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은 내용의 파악과 상관없이 원가라고 가명을 표기 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라는 가명만 주는 이미지는 그 배정설화의 충성과 신의의 유교적 내용과 달리 임금을 원 망하는 불충과 미움이다. 원래 가명은 노래의 창작동기, 작자, 시적대상, 내용, 형식 등 여러가지 속성 중에 가장 적합한 요소를 들어 그 노래의 특징과 그 노래와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기에 원가라는 제목이 있 어도 배정설화에 부적합하다 하겠다. 필자는 원가의 가명 표기에 있어 增補文獻備考에서 밝힌 富庭栢歌라는 가명을 제시한다. '富庭栢歌에서 栢(잣나무)은 시가의 배정설화에서 없 으면 안될 요소라 할 수 있다. 배정설 화 전체에서 잣나무(栢)의 역할은 크 다 할 수 있는데 효성왕과 신충이 禮와 신의를 잣나무에 맹세하였고, 신충 의 마음을 잣나무가 시든 것으로 대변 하였고, 효성왕의 禮 찾음을 푸르름으 로 표시한 부분 등 배정설화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시기에 있어서 주제가 신의의 충성스러운 마음 이듯 잣나무가 정절과 신의의 이미 지를 가지고 있기에 노래의 특징과 노래의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多栢木'에서 동백도 푸르름의 비 유는 이와 같은 것이다. 이처럼 '富庭栢歌'라는 제목에서 배정설화의 내용과 시가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으 니 가명으로서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가시는 적혀 있지 않으나 삼국유사와 증보문헌비고에 나타난 배 정설화의 일지는 대부분 학자가 인정 하고 있으나 위 노래를 증보문헌비고 에 나오는 '富庭栢歌'라는 제목의 가 명 표기에 근거하여 원가보다는 '富庭栢歌'라는 가명 표기가 타당하다 하겠다.

종합심사평

이런 학술상 심사 논문은 모두 3편뿐이었 다. 한해를 마감하는 학문적 가을같이 치고 는 너무 빈곤하여서 허전한 마음을 금할 길 이 없다. 그러나 3편의 논문은 모두 노력의 흔적이 보이고 진지한 학문적 태도도 엿어 낼 수 있어서 다소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박종양(철학)군의 '實學思想과 프라그 마티즘의 비교연구'는 선학들의 관계 논지를 참고하여 필자 나름대로 재구성된 피한 성실성은 옛보다나 강의력이 부족하고 논 의의 촘촘이 좀 산만하게 흩어져 있었다.

심사평

이 논문은 기존의 '怨歌'연구 실적들을 정정별로 정정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 된 몇 가지 문제점을 새롭게 조명하여 새로 운 해석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先行 연구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고 문제의 발견이 예감 화되기도 못했다. 따라서 지언히 주목할만 한 결론을 얻어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학술상 후보 논문 으로 추천하는 까닭은 학문적인 접근 철학 가 지켜지고, 학부 학생들로서는 쉽게 범접 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파헤 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 나름대로 새롭다고 생각하 는 몇가지의 해석 대안을 내놓은 점도 의욕 적이기 때문이다.

종합심사평

이런 학술상 심사 논문은 모두 3편뿐이었 다. 한해를 마감하는 학문적 가을같이 치고 는 너무 빈곤하여서 허전한 마음을 금할 길 이 없다. 그러나 3편의 논문은 모두 노력의 흔적이 보이고 진지한 학문적 태도도 엿어 낼 수 있어서 다소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박종양(철학)군의 '實學思想과 프라그 마티즘의 비교연구'는 선학들의 관계 논지를 참고하여 필자 나름대로 재구성된 피한 성실성은 옛보다나 강의력이 부족하고 논 의의 촘촘이 좀 산만하게 흩어져 있었다.

심사평

이 논문은 기존의 '怨歌'연구 실적들을 정정별로 정정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 된 몇 가지 문제점을 새롭게 조명하여 새로 운 해석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先行 연구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고 문제의 발견이 예감 화되기도 못했다. 따라서 지언히 주목할만 한 결론을 얻어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학술상 후보 논문 으로 추천하는 까닭은 학문적인 접근 철학 가 지켜지고, 학부 학생들로서는 쉽게 범접 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파헤 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 나름대로 새롭다고 생각하 는 몇가지의 해석 대안을 내놓은 점도 의욕 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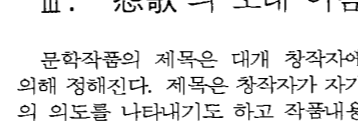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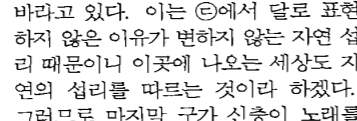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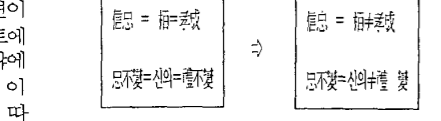
1. 측면 강조해 '원가' 재해석

와 관련 '공정백가' 적합

는 것으로 신충이 원가를 짓게된 이유를 적은 부분이다. ㉠시구에 대조되는 것 으로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강조하 고 있다. 가을에 잣나무의 떨어지지 않음을 애기한 것은 왕의 변화를 강조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

'富庭栢也(뜻사 바리나 누리도 아쳐른 데)' 이 시구는 임금의 용안, 태도를 바라 보며 변한 왕의 모습이 다시 돌아왔 으면 하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임금의 모습이 정돈을 벗어난 것이니 세상의 섭리가 그 규격을 벗어날 나지 않는 것처럼 정도의 길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이는 ㉠에서 달로 표현 하지 않은 이유가 변하지 않는 자연 섭 리 때문이니 이곳에 나오는 세상도 자 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다 하겠다. 그러므로 마지막 구가 신충이 노래를 짓게 된 동기(신, 충, 임신양명)가 가 장 잘 드러난 곳이다. 외역하면 '왕의 모양을 바라보네 세상도 그대로 되 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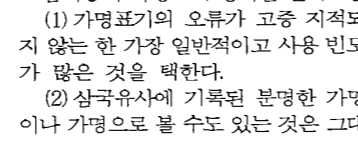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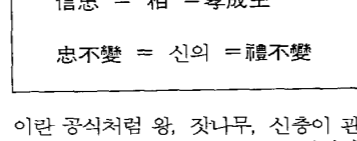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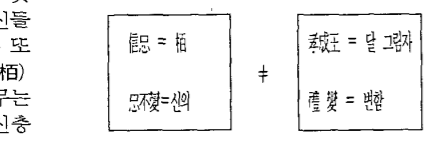
으로 드러난 것이나 원가를 주술적 효 과를 가진 시가로 하겠다. 지금까지 분석한 바를 정리하면, 儒 의 의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작품내용 과 연관성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작가가 스스로 제목을 정했을 때 예기다. 고래로부터 구전되어 내려 오거나 정착되어 내려온 작품 중 제목 이 소멸된 경우에는 후대에 그 제목을 복원해 부르고 있다. 한국의 가요 중 특히 제목이 소멸되지 않은 작품이 많 은 것은 향가라 할 수 있다. 향가 14수 삼국유사소제 중 제목이 표기된 것은 도솔가, 해성가, 찬기파랑가, 안민가, 현화가 뿐이다. 그 나머지는 그 가명이 전하지 않아 현재 각각의 논자들에 따라 달리 불리워지고 있다. 小倉進平, 양주동, 홍기문, 김시열, 김성기 등 각 학자의 가명표기 방식 차이는 거 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니를 잊지 않았다. 효성왕의 약속 을 설의법을 써서 강조하여 시작 분위 기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왕의 약속에 감복하여 절을 하며 우러러 보던 얼굴 이. 이제는 바뀌었구나라는 한번이 보 인다. 외역하면 '너를 여찌 있어 / 하 시어 우러러 보던 낮이 바뀔 줄이야.'
◎月麗羅影支 古理因淵之叱 行戶 浪 阿叱沙矣如支如支 ㉠ 그림자 넷 모섯 날 울결 애와티드)
이 시구는 위에 ㉠의 내용을 달과 못에 비유하여 신의를 저버린 효성왕 을 강조하고 있다. 잣나무가 변하지 않는 정절을 의미한다면, 달 그림자는 물결에 변하는 것으로 파악 되므로 다 음과 같이 공식을 만들 수 있다.

시가의 효과
시가의 효과는 배정설화의 '怨而 作歌' '帖於栢樹 樹忽黃悴' '乃召之 賜爵縣 栢樹乃蘇'에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신충이 원가를 지어 왜 잣나무 에 붙였을까? 하는 의문과 잣나무가 왜 변화할 일으켰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은 배정설화의 '유 여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기에 이는 바로

이런 공식처럼 왕, 잣나무, 신충이 관 계가 불변이라는 측면에서 동일시한 것이다. 신충이 왕의 禮 願을 대해 충성스러운 간언을 시로써 하여 왕의 禮 찾음을 갈구하고, 잣나무는 푸른 잎을 시들게 함으로써 왕의 禮 잃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신충의 충성스



여기서 신충은 왜 왕을 '달'로 표 현하지 않고 '달 그림자'로 표현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달은 자연이다. 자연은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 다. 달이 신라 시대에도 밤을 밝혔지

이런 공식처럼 왕, 잣나무, 신충이 관 계가 불변이라는 측면에서 동일시한 것이다. 신충이 왕의 禮 願을 대해 충성스러운 간언을 시로써 하여 왕의 禮 찾음을 갈구하고, 잣나무는 푸른 잎을 시들게 함으로써 왕의 禮 잃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신충의 충성스

이런 공식처럼 왕, 잣나무, 신충이 관 계가 불변이라는 측면에서 동일시한 것이다. 신충이 왕의 禮 願을 대해 충성스러운 간언을 시로써 하여 왕의 禮 찾음을 갈구하고, 잣나무는 푸른 잎을 시들게 함으로써 왕의 禮 잃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신충의 충성스

III. '怨歌'의 노래 이름

문화작품의 제목은 대개 창작자에 의해 정해진다. 제목은 창작자가 자기 의 의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작품내용 과 연관성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작가가 스스로 제목을 정했을 때 예기다. 고래로부터 구전되어 내려 오거나 정착되어 내려온 작품 중 제목 이 소멸된 경우에는 후대에 그 제목을 복원해 부르고 있다. 한국의 가요 중 특히 제목이 소멸되지 않은 작품이 많 은 것은 향가라 할 수 있다. 향가 14수 삼국유사소제 중 제목이 표기된 것은 도솔가, 해성가, 찬기파랑가, 안민가, 현화가 뿐이다. 그 나머지는 그 가명이 전하지 않아 현재 각각의 논자들에 따라 달리 불리워지고 있다. 小倉進平, 양주동, 홍기문, 김시열, 김성기 등 각 학자의 가명표기 방식 차이는 거 의 없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신라시대의 가요에 있어 유학자 출신의 작품으로 유교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원가를 연구한 바 그 결과로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원가의 작자 신충은 진골 출신의 왕족으로 그의 이름처럼 임금과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儒家 系이다. 둘째, 노래를 지은 동기는 잣나무의 푸르른 잎처럼 변하지 않는 충성과 임신양명의 마음이다. 셋째, 시가의 내용은 원망보다는 변 하지 않는 자연처럼 효성왕의 禮도 제 자리를 찾기 바라는 希願이며, 禮를 잃은 효성왕에 대한 간언을 그 목적으 로 한다. 넷째, 시가는 잣나무를 시들게 하는 주술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가명의 표기는 원망하는 노래라는 뜻의 원가보다는 배정설화에 등장하는 잣나무의 역할과 시가의 신 의를 잣나무로 표현한 것 두 가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증보문헌비고에 나오는 '富庭栢歌'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원가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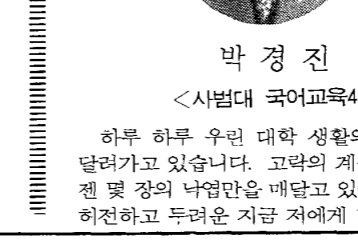
이 논문은 기존의 '怨歌'연구 실적들을 정정별로 정정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 된 몇 가지 문제점을 새롭게 조명하여 새로 운 해석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先行 연구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고 문제의 발견이 예감 화되기도 못했다. 따라서 지언히 주목할만 한 결론을 얻어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학술상 후보 논문 으로 추천하는 까닭은 학문적인 접근 철학 가 지켜지고, 학부 학생들로서는 쉽게 범접 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파헤 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 나름대로 새롭다고 생각하 는 몇가지의 해석 대안을 내놓은 점도 의욕 적이기 때문이다.

홍장희군의 대원군 집정기의 민란에 대한 연구

大院君執政期의 농민봉기(민란) 문제를 다룬 학술논문이다. 주제가 지닌 특성으로 보아 매우 주목되는 논문이라 하겠으나 그 접근방법으로 보아 참신성이 부족하고 연구 사를 통해 본 문제점이 미흡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 논문은 종래의 연구를 재검리 한 것으로 의욕에 비해 내용의 논리적 전개 가 뚜렷하지 못하다. 그리고 주제의 범위가 방대하여 학생논문으로서의 선택적재가 무 리였다고 하겠다. 본문의 史料引用은 生硬

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처리 내용이 濼濼 하거나 빈약하므로 인용하였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해 학문적 인 성과를 기대하려는 것이지, 혹은 전달하 려는 메시지가 분명치 않다. 끝으로 주제선택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 가되며 학생논문으로서의 노력의 지혜를 높이 실망한다.

당선소감



박경진 <시험대 국어교육4>

"7년 대학생활의 아쉬움으로 시작한 논문이 완성되었을 때 무언가 남았다는 보람을 느꼈다"

광은 조금이나마 빈 마음에 충만과 따스한 내일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학에 적을 두고 있었기에 많은 일을 이루어 놓았다고 생 각해 보았습니다. 부업인가 이르기 위해 많 은 시간을 투자했고 많은 정력을 소비했지 만 뚜렷하게 내 결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 니다. 그래서 시작한 논문, 아직 많이 알지 못하는 내 가라는 망설임도 있었지만 논문이 완성되었을 때 그래도 부업인가 남았다는 생각이 큰 보람으로 와 닿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토론했던 고전문학의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바쁜신 중에도 지성하게 지도해 주신 김동준 선생님과 제 논문을 읽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대학교 각 대학원 학생모집

경원대학원

-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 과정
 - ①경제학과: 산업경제, 금융 및 재정
 - ②무역학과: 무역이론, 무역실무, 무역보험 및 해운, 무역경영
 - ③경영학과: 조직 및 인사관리, 생산관리 및 계량경영, 마이케팅, 재무관리, 국제경영
 - ④회계학과: 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 ⑤경영정보학과: 정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 ⑥노사관리학과: 노사관리
 - ⑦부동산학과: 부동산
-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11. 12(목) ~ 11. 25(수)
- 전형일시 및 장소

1992. 11. 28(토) 오후 2시 본 대학원
- 전형방법
 - ①석사과정: 논술형(경영학원론) 및 면접
 - ②연구·관리자 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①해의 자매대학 등에 연수기회 제공
 - ②본교의 컴퓨터센터를 이용<경영정보학과>
 - ③공무원, 교직원, 군인,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전화 260-3105·3106

교육대학원

-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 연구과정
 - ①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경영, 상담교육, 유아교육
 - ②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 지리교육, 역사교육, 수학교육, 윤리교육, 철학교육, 미술교육, 한문교육, 체육교육, 영어교육, 불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가정교육, 전산교육, 종교교육
-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11. 19(목) ~ 11. 27(금) 오후 5시
- 전형일시 및 장소

1992. 12. 5(토) 오후 2시 본 대학원
- 전형방법
 - ①석사과정: 필기시험(전공, 교육학) 및 면접
 - ②연구과정: 필기시험(교양) 및 면접(면, 미술교육전공 응시자는 활동실적 포함하며 작품 20호 이상 1점 제출)
- 특 전
 - ①무대전원: 중등학교 현직교사 및 교감, 교장, 교육행정기관의 장차사, 연구사 등
 - ②장 학: 공무원, 교직원 및 조계종 재직 승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함.
 - ③특 전: 교원자격 검정기출 해당자는 졸업 후 중등 2급 정교사자격증 발급.

전화 260-3109·3110

정보산업대학원

-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 연구과정
 - ①정보전산학과: 정보관리, 전자계산
 - ②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 출판편집
 - ③정보통신학과: 정보통신
-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11. 26(목) ~ 12. 9(수) 10:00 ~ 17:00(연, 토, 일요일은 교무관 함)
- 전형일시 및 장소

1992. 12. 12(토) 오후 2시 본 대학원
- 전형방법
 - ①석사과정: 필기시험(전공 및 영어) 및 면접(전공시험은 정보전산학과 컴퓨터개론, 신문방송학과 논문, 정보통신학과 정보통신개론 임)
 - ②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①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중견간부원으로 세 요율을 목적으로 하는 분을 우대함.
 - ②현직 언론인에 대하여 특별우대장학금을 지급함.
 - ③출판편집 전공자에게는 범우출판 장학금 특전이 있음.
 - ④공무원, 교직원, 군인, 국가산업체 중견간 부요원에 대하여 각종 장학금 지급.

전화 260-3113·3115

산업기술대학원

-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 연구과정, 고급산업 관리자 과정
 - 전자·전기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건설공학, 화학공학, 식품공학, 산업공학, 등
 - 필자, 각 전공별 약 1년
-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11. 12(목) ~ 11. 25(수) (연, 토, 일요일은 제외)
- 전형일시 및 장소

1992. 11. 28(토) 오후 2시 본 대학원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①기업체 및 국가 기관의 중견간부와 장기 실무 경험자는 전형시 우대함
 - ②공무원, 군인, 교직원, 국가산업체 및 유 수한 기업체 중견간부에게는 각종 장학금 을 지급함.
 - ③재학시 총장장학, 우수장학, 외국인 장학 등 각종 장학 특전 부여
 - ④해의 자매대학 대학 등에 연수기회 제공

전화 260-3602·3603

지역개발대학원

-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 과정
 - 개발행정학과: 개발행정, 지방자치, ... 등 재개발
-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11. 17(화) ~ 11. 24(수) 오후 5시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1992. 11. 28(토) 오후 2시 본대학원(경주 캠퍼스 진흥관)
- 전형방법
 - ①석사과정: 논문, 서류전형 및 면접
 - ②연구·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①기업체·정부부서 실무경험자: 신청서서 우대
 - ②공무원, 군인, 교직원, 국가산업체 및 유 수한 기업체 중견간부에게는 각종 장학금 을 지급함.
 - ③재학시 총장장학, 우수장학, 외국인 장학 등 각종 장학 특전 부여
 - ④해의 자매대학 대학 등에 연수기회 제공

전화: (0561) 770-2093·2572

'할리우드 영화'에 자리 내준 '방화'

◇우리영화의 현실...이대로 좋은가

서울의 극장가를 살펴보면 할리우드의 오락영화와 액션영화가 판을 치고 있어서 한국 영화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뒤로 밀리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에 굴복하여 영화 수입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영화산업과 비교해서 미국은 3대산업중 영화로 인한 수입의 비중이 크기때문에 세계의 영화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할리우드의 대매이저회들이 서울의 한복판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전국의 극장가를 점령해 놓고 있다. 또한 그들은 영화 흥행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한국영화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영화뿐만 아니라 정신문화까지 침투할 여지를 주고 말았던 것이다.

그나마 겨우 한국영화가 생명을 잃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극장에서 일년에 1백45일은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만 하는 스크린쿼터제나 영화의 프린트를 13일이 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와 제한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일본영화까지 개방하려고 한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만약에 스크린쿼터제와 프



◇정부에서는 한국영화에 대한 보호책과 육성책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만 한다.

스크린쿼터제 · 프린트 제한... 마지막 보루

전용극장 - 기술개발 등 재정지원 필요

린트의 제한을 없애고, 그리고 일본영화를 개방한다면 어느 극장주가 흥행성이 없는 한국 영화를 상영하려고 할 것인가는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할리우드의 대매이저회들은 수십억의 프린트로 전국의 극장망을 체인화해서 상영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극장의 운영권을 그들에게 빼앗기게 되어 한국영화를 상영할 극장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면 정부에서는 한국영화에 대한 보호책과 육성책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만 한다. 몇가지 생각해 보자. 첫째로 한국영화만을 상영하는 전용극장을 전국적으로 확보해야만 한다.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세계의 혜택을 주어 방화전용극장이 되어 영화를 제작해서 상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는 장외적이고 독자적인 영화감독들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자료를 정부에서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뛰어든다.

세번째로는 완성도 있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영화기 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S·F영화의 붐으로 많은 상에서 일본영화를 개방하고 스크린쿼터제와 프린트제한을 철폐한다면 아마도 한국영화의 제작편수는 일년에 10편 이내로 제작될 것이고, 설사 제작된다 해도 상영할 극장을 찾지 못할 것이다.

홍콩의 액션영화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그들은 영화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시장으로 영화를 수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점은 영화를 양성해야만 한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영화과에서도 이론과 실기를 분과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연극영화과로 묶여놓고 있어 많은 커리큘럼에서 충분한 이론과 실습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연극과와 영화과로 분리할 수 있도록 정원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자재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기업들이 시설을 지원해 주면 세계상의 혜택을 주어서 대학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이미 외국에서는 시행되고 있고, 이러한 결과 자국의 영화들이 보호를 받고 있어서 건전한 영화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영화를 개방하고 스크린쿼터제와 프린트제한을 철폐한다면 아마도 한국영화의 제작편수는 일년에 10편 이내로 제작될 것이고, 설사 제작된다 해도 상영할 극장을 찾지 못할 것이다.

민병록

<예술대 연영과 교수>



여성해방과 불교

전혜주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을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여성도 남성처럼 인간이다"라고 힘주어 외치는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사실을 거론한다하여 도의시킬 것이다. 그런데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마치 천부당 만부당한 예기라도 하는 것처럼 거부하는가하면, 적선을 강요할지라도 하듯 별로 달가와하지 않는 자가 많다.

적 차별을 철폐하고 극심한 남녀차별을 타파하여 승가구성원 누구나 평등한 불교공동체를 이루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그 중심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며, 사람이 귀하고 천한 것은 그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는 업에 따른 것임을 주지시키셨다. 교단내 여성승가를 허용하여 민인의 귀의처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 모든 존재는 서로 상의상관 하는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서, 남자나 여자나 하는 차별상도 본래 없는 단아평등을 주장하신 것이다.

가속구성원간에 예사로 벌어지고 있는 가정의 남녀차별에서부터 거대한 조직사회의 제도적 차별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불이익은 다양하게 민영화되어 있다. 인습적인 낡은 관념은 불문율로서 도처에 횡행하고 있으며, 차별을 짊어지고 있는 광고 선전문구는 그에 대한 숨은 공포라 할 것이다. 요즘 크게 거론되고 있는 정신대할머니 문제도 그러한 남녀불평등의 소산불림에 예외가 아니다.

그러한 평등사회의 건립은 부처님의 전 생애가 교화 진도로 일관됨에서도 드러난다. 최초로 제자들에게 권도하러 떠나보내면서 하신 전도의 선언도 "민인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가라"는 말씀이었던 것이다.

그 정신은 후에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자타입시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하자는 대승정신으로 다시 꽃피게 되었다. 제법 연기의 범칙속에서 남녀의 차별상이 무지성공인을 철저히 지각함으로써 주반 중중(主伴重重)의 무진 연기(無盡緣起) 속에서 복된 삶을 건립해 가도록 한 것이다.

주종이 따로 삼은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남남이 평등한 자적으로서 나름대로의 다른 역할을 펼쳐보일 것이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인 것이다. 그 보살행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고 성불하는 것이다. 본래 자신속에 간 무리된 부한한 가능성 즉 불성을 개발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해방사상은 바로 불교의 핵심사상에 속하며, 여성해방운동은 석존과 대승불교도들이 펼쳐진 불교운동의 범주에 속한다 하겠다. 따라서 여성해방을 통한 우리 모두의 행복은 석가모니부처님의 근본정신에 되돌아가야 있다고 하겠다.

그럼으로 여성해방사상은 바로 불교의 핵심사상에 속하며, 여성해방운동은 석존과 대승불교도들이 펼쳐진 불교운동의 범주에 속한다 하겠다. 따라서 여성해방을 통한 우리 모두의 행복은 석가모니부처님의 근본정신에 되돌아가야 있다고 하겠다.

공뜨

2해 겨울의 환

이젠 거들떠 보는 사람도 없는 당선사례가 적힌 현수막이 간간히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제외하면, 신촌의 겨울은 어느 해와 다를 바 없었다. 대선 후 유중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전야의 거리는 북적대는 젊은 남녀들과 징글벨 소리를 요란할 뿐이었다. 사람들은 언제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어느새 일상속으로 파묻혀 가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양 미간을 찌푸렸다. 덩달아, 지하철역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 내려가는 그의 발자국 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크게 울리고 있었다.

"독사는 이미 번득이는 이빨로 먹이감을..."

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여간 아쉽지가 않구나. 더욱이 수베꽃을 단 것으로 사회에 나가려니 적잖게 두려워진다. 함박눈이 쌓이고 있는 대운 동장 가득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눈과 섞여 흘러 내렸고, 두 귀엔 사람들이 내지르는 기쁨의 환호성이 들려 왔다. 그리

부끄러운 날이었다. 하루 종일 패배의 늪에서 그저 절망만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할 싸움이었다. 적들의 간교한 여론공세도 있었지만 그것 보다는 민민은 진영내의 일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팽배해 있던 패배주의가, 건장한 사고를 지닌 사람들조차 수렁으로 내

라. 헌병 질서가 무너진 마당이니 강력한 정부를 내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강력한 정부란 게 파시즘이 아니고 또 무엇이었나. 실로, 민족의 내일이 풍전동화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 어느새 적지않은 사람들의 뇌리에 패배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페세라 세라 식의 말세적 사고마저 자리하고 있었다.

48년 12월 18일, 후배의 건 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선배 민주 송.

학생회관은 거의 어둠에 정복당한 채 몇 안되는 창문을 통해 스며나오는 불빛을 위태위태하게 내뿜으며 서 있었다. 1층 대합실에 들어선 지우는 사각의 기둥에 붙여진 두 장의 대지보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대신이 팔난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는데, 독사는 이미 번득이는 이빨로 먹이감을 들이던 것이다.



나 눈 위에 짙어 놓은 선명한 발자국들만 비웃고 있을 뿐 사방은 고요했다. 나는 이를 앙다물었다. 사방도 명에도 이렇듯 남김없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지 말자... 행진곡은 끝내 장송곡으로 바뀌어 슬퍼하게 떨리고 있었다.

본 결과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이미 작정된 영구집권 음모의 시나리오를 서서히 실행에 옮긴 것이다. 선거 끝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다시 내각제 개헌 운운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해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조차

수 없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이 정도로 맺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약속하마!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 그날까지 결코 잠원다거나 죽는 일 따윈 없이 당차게 생활하겠다고.

(법학87) 학원이 라스베가스를 통해 남산 순화도로도 빠져나 가던 중, 잠복해 있던 인기부 소속 형사들에 의해 연행됨...

그 이래 붙여진 또 한 장의 대지보는 이렇게 알리고 있었다.

어느새 패배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패세라 세라' 식의 말세적 사고마저...우리에게 남겨진 길은 그들의 군화발에 짓밟히느냐, 맞서 싸우느냐의 두 가지밖에 없다.

20일 밤 10시경, 수베꽃을 단 제 22대 총학생회장 김민주

“오늘(24일) 새벽, 저서 속 경찰 50여명이 학생회관 침탈 / 총학생회장 및 동아리방에서 잠자고 있던 학우 12명 전원 연행. 연행자 명단, 정민도(국문 88, 제 25대 총학생회장).....”

우리말 알고 쓰시다

현행 맞춤법에는 사이시옷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합성어인 경우, 쓰이는 예가 있는데 기준을 몰라 답답할 때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사이시옷을 쓴다. '갯방·나룻배·넋가·나룻가지·못자리·잇지국' 등은 뒷말의 첫소리 'ㄴ'이 앞말의 'ㄹ'과 만나서 'ㄴ'소리가 된다는 예이다. '갯방'·'나룻배'·'넋가'·'나룻가지'·'못자리'·'잇지국' 등은 뒷말의 첫소리 'ㄴ'이 앞말의 'ㄹ'과 만나서 'ㄴ'소리가 된다는 예이다. 또 '뒷일'·'나룻일'·'베갯잇'·'똥똥' 등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앞에서 'ㄴ'소리가 된다는 예이다.

②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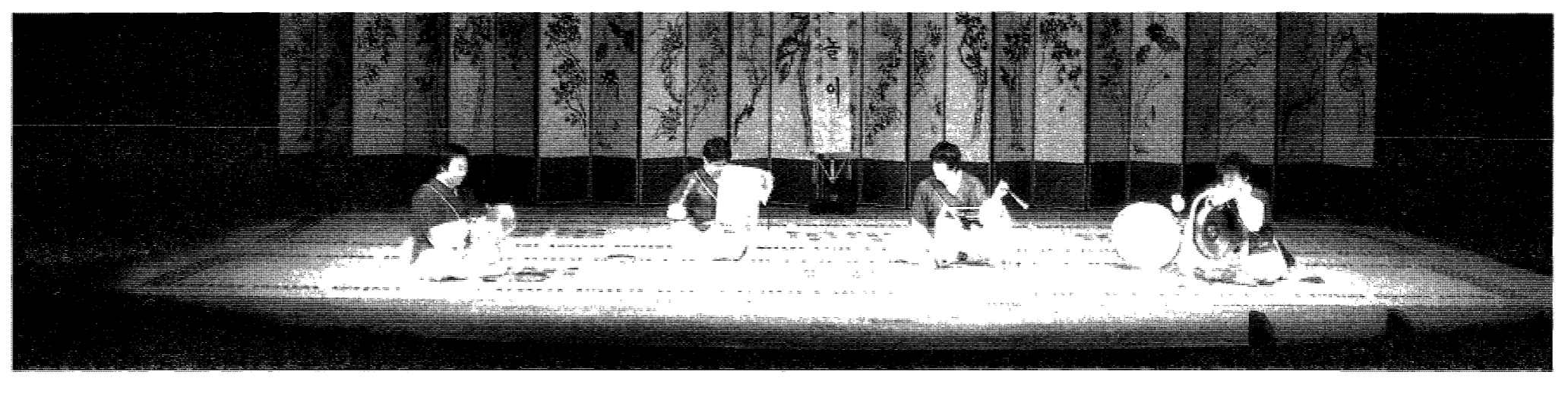
끝난 경우 '갯방·전셋집·땃세·똥가루·셋방' 등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나 나는 예이고, '옛날·갯마루·양치기' 등은 뒷말의 첫소리 'ㄴ'·'ㄹ' 앞에서는 'ㄴ'소리가 된다는 예이다. '갯방'·'나룻배'·'넋가'·'나룻가지'·'못자리'·'잇지국' 등은 뒷말의 첫소리 'ㄴ'이 앞말의 'ㄹ'과 만나서 'ㄴ'소리가 된다는 예이다.

이번에는 접미사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접미사가 붙은 말중에는 다음의 예가 가장 주의할 요한다.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들'을 접미어로 삼는다. 또 제2, 제3의 의미를 가진 수사는 '두째, 세째'가 아니고 '둘째, 셋째'가 하겠다.

김무봉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어우러져 아름다운 소리, 어우러져 멋이 나는 옷차림



옷차림의 기본 - 무엇을 입느냐보다는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우러져 멋이 나는 트레이드클럽 - 옥스퍼드, 험버드, 프린트에서 우리의 대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에 있어서는 무엇을 입느냐보다 어떻게 입느냐가 더 어렵고, 중요함이다. 시대와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세계 명문대학에서부터 사랑받아온 트레이드클럽 스타일 - 이것이 지금 캠퍼스는 물론, 전세계 남성들에게 옷차림의 기본으로 통한다. 베이직한 정장수트에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셔츠와 타이로 멋을 낸 트레이드클럽 스타일은 그 조화만으로도 잊을 수 없는 멋을 발해 준다. 옷을 구입할 때부터 어떻게 조합시켜 입을 것인가에 대해 조금만 생각한다면 옷 한 번으로 다량하고 변화하는 옷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클럽에 있습니다. 한 발을 세 배처럼, 세 발을 열 배처럼 입는 지혜. 트레이드클럽은 단순히 옷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시대와 유행을 초월하여 사랑받는 트레이드클럽 스타일을 기본으로 캐주얼은 물론 정장 수트와 셔츠, 넥타이 등을 매 장소, 경우에 맞게 조합시켜 입을 수 있는 남자들의 해를 살아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클럽의 정장수트는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베이직 스타일로서 한 두 번만 갖추면 셔츠와 넥타이의 변화만으로도 여러가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특히, 트레이드클럽의 블레이저는 정장에서 캐주얼까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센스있고, 맛있는 옷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옷차림은 트레이드클럽과 의논하십시오.

트레이드클럽에 있습니다. 한 발을 세 배처럼, 세 발을 열 배처럼 입는 지혜. 트레이드클럽은 단순히 옷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시대와 유행을 초월하여 사랑받는 트레이드클럽 스타일을 기본으로 캐주얼은 물론 정장 수트와 셔츠, 넥타이 등을 매 장소, 경우에 맞게 조합시켜 입을 수 있는 남자들의 해를 살아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클럽의 정장수트는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베이직 스타일로서 한 두 번만 갖추면 셔츠와 넥타이의 변화만으로도 여러가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특히, 트레이드클럽의 블레이저는 정장에서 캐주얼까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센스있고, 맛있는 옷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옷차림은 트레이드클럽과 의논하십시오.

교 환 권

웃기는 법을 지혜로 소개한 트레이드클럽 책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분권을 가지고, 가까운 트레이드클럽 매장에 들려주시면, 책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Trad Club

Trad Club

맥 사임에도 일년된듯한 옷, 심신을 입어도 일년된듯한 옷

(주)서울트레이드클럽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남동 79-19 트레이드클럽빌딩 4층 / 문의전화 135-1000 / 전화 (02) 542-8888

단과대 학생회선거 막바지

자주적 학생회 기치내건 후보 대거당선

서울 캠퍼스 각단과대 학생회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주요단과 학생회선거결과 자주적 학생회건설의 기치를 내건 후보진영이 대거 당선돼 내년과 대조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문과대: 지난 20. 21일 실시된 제25대 불교대 학생회 선거에서 단독출마한 김창모(불교 3)·남철수(선 3) 조가 총유권자 2백78명 중 2백13명(76.6%)이 투표, 찬성 1백82명(85.4%), 반대 27명(12.7%), 무효 4명(1.9%)로 당선됐다.

제25대 문과대 정·부 학생회장에 기호 2번 이영조(사 3), 정혜원(국문 3) 조가 유권자 1천10명 중 7백48명이 참여한 가운데 4백46표를 얻어 당선됐다.

지난 22일 문과대학생활에서 개표된 선거결과에 따르면, 정·이조는 2백97표를 얻은 임상락(국문 3), 조지현(철학 3) 조와 비교해 1백49표 차이로 당선 확정됐다.

제25대 이과대 정·부 학생회장에 기호 1번 김태웅(통계 3), 박준용(화학 2) 조가 당선됐다.

지난 20일 실시된 개표에서 김·박조는 총 투표수인 5백41명 중 2백97표를 얻어 임상락(국문 3), 조지현(철학 3) 조와 비교해 1백49표 차이로 당선 확정됐다. 이날 투표는 총 유권자 수 6백29명 중 5백41명이 투표, 86%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제25대 법과대 정·부 학생회장에 기호 1번 김태웅(통계 3), 박준용(화학 2) 조가 당선됐다.

로 하나되고 변혁으로 주인되는 동아의 자존심, 법학도여! 라는 구호를 내건 이창규(법 3), 박남진(법 2) 조가 단독 입후보해 찬반투표를 통해 당선됐다.

사과대: 제6대 사과대 정·부 학생회장에 기호 1번 이원환(사회 3), 백승권(경 2) 조가 당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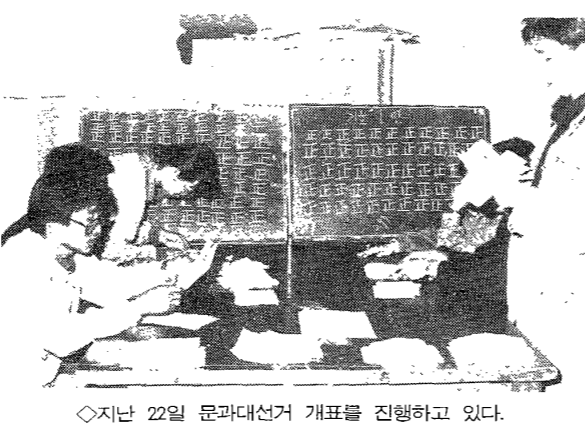
총 유권자 6백9명 중 5백14명이 투표, 84.4%의 투표율을 보인 이번 투표에서 이·백조는 기호 2번 이재관(경의 3), 박정석(행정 2) 조가 얻은 2백54표보다 3표 많은 2백57표를 얻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결산대: 지난 21. 22일 양일간 동국관(2층 로비)에서 실시된 제25대 경상대 정·부 학생회장 투표에서 '새 것에 밝고 진리에 민감한 새 시대 청년 경상인이여!'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단독출마한 서창영(무역 3), 윤기(회계 3) 조가 총유권자 1천1백20명 중 5백91(52.7%)명이 투표, 찬성 5백32(90%)명의 지지를 당선됐다.

제25대 정·부 학생회장에 회장선거에 '구국구농의 큰뜻' / '농대중흥의 한길로'를 내걸고 단독 출마한 반준(임학 3), 이규석(농경 3) 조가 지난 26일 해화관에서 1차유세를 가졌다.

투표는 어제(27일)와 오늘(28일) 양일간 해화관 앞에서 실시한다.

제15대 공과대학생회장에 회정·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박원석(전기 3), 김현준(컴공 3) 조와 기호 2번 한철희(컴공 3), 김성기



◇지난 22일 문과대선거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신입 단과대 정·부 학생회장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투표율(%)	득표율(%)
불교대 김창모(불교3)	남철수(선3)	76.6	85.4
문과대 이영조(사3)	정혜원(국문3)	74	59.6
이과대 김태웅(통계3)	박준용(화학2)	86	54.1
법과대 이창규(법3)	박남진(법2)	59.4	90
사과대 이원환(사회3)	백승권(경의2)	84.4	50
경상대 서창영(무역3)	윤기(회계3)	52.7	90
사본대 류치진(역교4)	구정화(수교3)	77.5	62.6
야간강좌 박정진(무역3)	이승필(경영2)	61.5	71.3

(토목 2) 조는 지난 26일 원동관(4층) 입구에서 7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1차유세를 마쳤다. 또 오늘(28일) 2차유세를 같은 장소에서 오후 1시에 갖는다.

투표는 29. 30일 양일간 원동관 입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사법대: 제25대 사법대 정·부 학생회장에 '일관단심 학우사랑 조국사랑'으로 제3기 자주적학생회 깃발을 치켜든 기호 1번 류치진(역교 4), 구정화(수교 3) 조가 당선됐다.

총 유권자 1천72명 중 8백31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제9대 동연선거 경선 오는 6일 투표 실시

(민족사연구회90), 정의석(아리랑90) 조가 입후보했다. 선거일정을 보면 내달 3일 1차유세를 학생회관앞에서 오후 4시30분에 갖고, 2차유세는 5일 오후 4시30분에 학생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가지며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해 각 동아리별 대의원(회장, 부회장, 수석진행부서장) 명단을 오는 31일까지 동아리별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의원명단은 반드시 각 동아리 회장명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원 학생회 제5회 학술강연회 '우리이론에 대한...' 주제

제8대 대학원학생회(회장=김대중·행정학) 주최 제5회 정기학술강연회가 인문사회과학연구회 후원으로 오는 11월4일 오후3시 동국관(L401)에서 열린다.

전환시대의 한국학을 위한 한국 인문학의 반성과 전망을 제시할 이번 학술강연회는 조동일(서울대 국문학) 교수가 맡는다.

선거에서 기호 2번 김정훈(국교 3)·박준호(역교 2) 조가 얻은 2백82표보다 2백39표가 많은 5백21표를 획득, 62.6%의 지지율로 당선이 확정됐다.

야간강좌: 제9대 야간강좌 정·부 학생회장에 '어머니 / 조국하는 찬란한 별' 빛처럼 학우들 가슴에 뿌리내릴 변화의 몸짓 당찬 걸음으로 새시대 자주적 학생회를 노래하라! 그대 야간 강요여! 라는 구호를 내걸고 입후보한 기호 1번 박정진(무역 3)·이승필(경영 2) 조가 당선됐다.

지난 21. 22일 양일간 동국관에서 실시된 투표에는 총유권자 수 1천1백35명 중 6백99명이 참여했다. 개표결과에 따르면 박·이조는 기호 2번 한송우(경제 4)·하동수(무역 3) 조가 얻은 1백92표보다 2백7표 많은 4백99표를 얻었다.

추계대학축구 연맹전 '92학년도 전국추계대학축구 연맹전'이 지난 27일 개막됐다.

오는 11월 1일까지 18일간 동대문·효창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이번 대회에서 본교는 오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충남대와 예선 첫 경기를 치른다.

한편 이번 연맹전은 리그전 방식으로 예선전을 벌인후, 예선 각 조 1. 2위팀간 16강전부터 토너먼트 형식으로 우승을 겨룬다.

내년 교양영어교재 개편 일반교양등 평이한 문장 수록

'93학년도 교양영어 교재편찬 위(위원장=홍철원·영문학)는 대학영어(I) 교과서를 내년 1학기부터 전면 개정에 편찬한다.

이번 영어교재 개정과 관련 출판부의 한 관계자는 "현 교과서가 사회과학 위주로 전문적으로 나뉘어 있는 부분이 많아 각분야별 교양영어교재로 쉽고 평이하게 편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될 영어교재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교양생활의 균형을 위한 특색을 띠도록 하도록 정치·경제·종교·문화·과학 분야가 각 분야 명사들의 연설문, 일반교양등 정평있는 문장들이 수록된다.

예술대, 단일건물 생취대책위 꾸려 "체계적 투쟁 벌일 계획"

예술대(학생회장=김영정·미술4) 단일건물 생취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지난 23일 예술대 건물 관화실에서 1차 대책위 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위 회의에서는 발족식 준비 및 부서배정이 이뤄졌다.

대책위 위장단에는 예술대 학생회장을 비롯해 미술학과, 연극영화학과 학생회장, 부대책위원장은 연영과 집행부 중 1명을 지정하기로 했다. 그 외 조서부, 심의부, 선전부 등을 두면서 체계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오는 30일 전후로 단체 차원의 선전전을 벌여 예대의 공식적 입장을 알릴 계획이다.

대학원 학생회 선거일정 내달 16. 17일 투표

대학원학생회(회장=김대중)는 제9대 대학원학생회 정·부 학생회장선거 일정을 발표했다.

후보자 등록마감은 오는 11월 3일 오후 5시이며 투표는 16. 17일 양일간 실시된다.

충대, 2학기 학생회비 분배안 확정 예산액 감소로 단과대 기본금만 지급

제24대 충대의원회(의장=김성원·경의4)는 지난 8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92년도 2학기 학생회비 분배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분배안은 2학기 학생회비 수납 지조에 따라 전체배분액이 예산수준 예산액보다 1천여만원 줄어든 3천여만원으로 하향조정에 분배되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곳은 각 단과대 학생회들과 예년처럼 기본금에 가산금

(남부하수×1인당 기준금)으로 책정되어오던 것이 기본금 1백50만원만이 책정·분배됐다.

또한 중앙자치기구인 총학생회(20%), 총대의원회(8%), 동아리연합회(8%)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배분액 중 36%가 지급되나 예산은 지난해보다 1/5가량 축소된 규모이다.

한편 지금까지 단과대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책정·지원해온 공과대와 야간강좌에게는 충학의 야간강좌지원

금 10만원, 11개 단과대 학생회 기본금 지급의 잔액전부가 지급됐다.

독일교수 초빙 강연회 법과대(학생회장=정혜원·법4)는 지난 27일 오후 2시 동국관(L306)에서 '독일법상 환권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회는 본교와 자매결연 맺은 독일 Regensburg 대학 법과대 교수 P. Gottwald 교수를 초빙하여 폭넓은 토론을 가졌다.

학과소식 <서울캠퍼스> 불교학과 제87대 불교학과 학생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홍양희(불교2)군이 당선됐다. 홍군은 지난 12일 실시된 투표에서 총유권자 1백33명 중 1백7명이 투표에 참가, 찬성 86표, 반대 17표, 무효 4표로 80.37%의 지지를 얻었다.

인도철학과 제9대 인도철학과 학생회장에 단독출마한 강경태(인철2)군이 총유권자 61명 중 47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찬성 43표, 반대 3표, 무효 1표로 당선됐다.

선학과 제13대 선학과 학생회장에 단독출마한 여용욱(선2)양이 99%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지난 20일 실시된 투표에서 총유권자 78명 중 65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64표, 반대 1표로 당선됐다.

사학과 인도회(79학번·포항육일교 통상장)등이 이과 후배들의 취업향상을 위해 지난 10월30일자로 '브리타니카대사전 33권을 학과에 기증했다.

오는 29일 과학학생회장선거 및 총회가 학화실에서 마련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모의국회 평가를 겸한다.

미술학과 1학년 전시회가 지난 26일 오후 5시 동국관 5층 로비에서 열렸다.

야간강좌 결연학과 졸업선배와 재학생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제2회 '한솔제'가 지난 24일 을지입구 싸움빌딩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렸다.

대학원 불교학과 지난 22일 인도의 저명한 불교학자인 Lokesh Chandra 교수를 초청해 동국관(L306)에서 석업일에 관한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대학원 연극영화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설립 20주년 기념 및 제5회 실습공연 '이집타들의 별들'을 오후 4시·7시 연영과 스튜디오에서 공연한다.

슬기했던 공청회

○...지난 26일 도서관앞에서 열린 공청회는 현 동국 학생회의 새로운 전황점을 세우기에 충분했다는데.

총학생회 선거결과가 문과와 과외이 아닐 공청회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여 조만간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하지만 이날 학생들의 이와같은 이해에는 아랑곳없이 정과 학생회의 구심이라 할수 있는 총학생회 정·부회장의 모습은

찾아볼수 없어 아쉬움을 던져 주었다는데.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아부개 학생은 뒷배위해 말하기를 "현 학내문제를 풀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르게 아닌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학생회장부의 분발을 요구하기도

한 직원은 "학교사랑은 슬관(?)이 되어 빛을 발하지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작은 일부터 꾸준히 해 나갔을 것이라면 충분... 최근 학내 곳곳은 다학관이나 본관, 도서관등 학교당국에서 지난날 도세작업을 완료해 깨끗해진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강경태, 정혜원, 김성기 이사할때

평등과내던 민내내, 또한 빈 내내에의 큰 망신을 샀는데... 까닭인즉 이사할때

로써 재집권을 하겠다는 정신상태가 우습네요

교육환경 파괴가 험랄 ○...옛부터 강조해온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하라'는 말에서 '희생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요즘 경주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인용된다.

다름아닌 경부고속전철이 경주캠퍼스를 인근지역을 관통하게 된 것을 두고 한 말인데, 국가의 중차대한 사업을 일개 사립대학이 함부로 나서서 건장으로 여기는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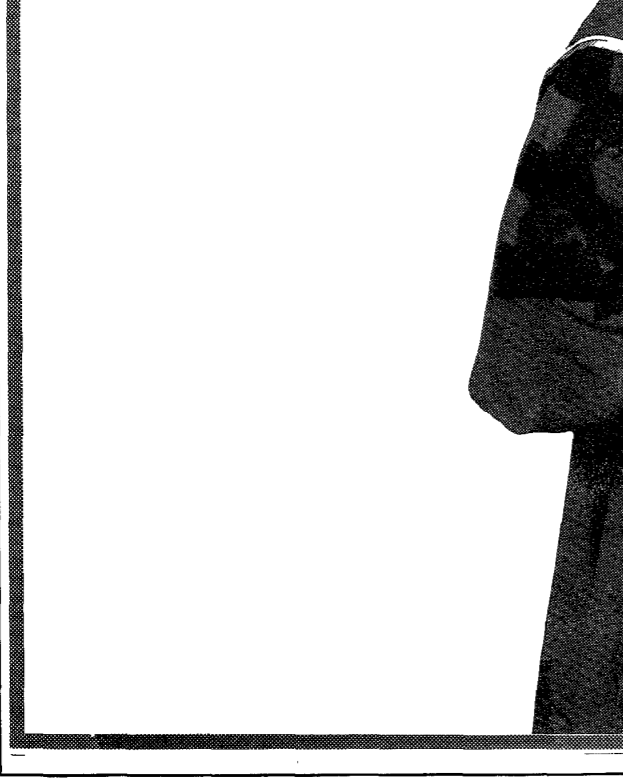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공서시행측에선

좋은 기업, 그곳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SKMS)

SKMS (Sunkyoung Management System, 선경경영관리체계)는 학문적, 이론적인 경영기법이나 실용적 기업경영을 통해 목표 달성하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골라 회장에서부터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전신경의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경영관리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선경의 기업구성원들은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참신, 합리, 인간중심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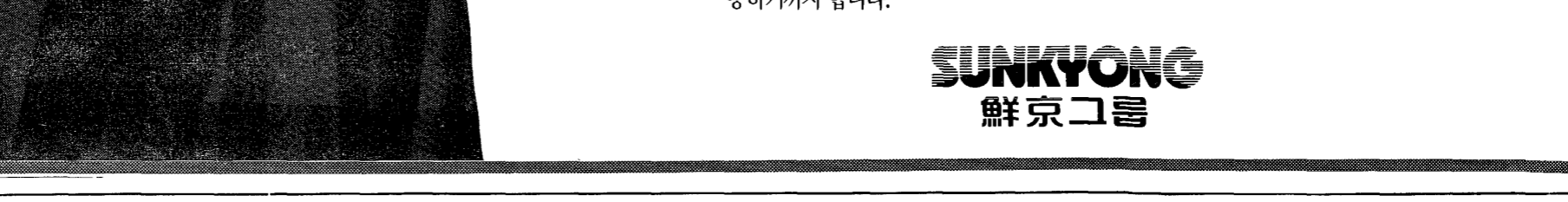
“화공학을 전공한 신입사원 이태근씨가 요즘 친구들에게 경영학박사로 통하는 이유”

대학에서 경영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화공학도 이태근씨 졸업후 유공 고분자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입사할때까지만 해도 자신은 경영과 무관한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 연수과정 중 접하게 된 SKMS를 접하게 되면서 경영이라는 것이 이론속에 파묻혀있는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현실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조별토의와 질의응답 그리고 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SKMS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그러한 생각에 더욱 확신을 갖게되었고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자신을 비롯한 신입사원 모두를 조금씩 성장시켜주는 데에 조금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흥미를 느낀 그가 요즘에는 대화중에 경영에 대한 나름의 논리를 골잡 파곤해서 주위친구들에게 경영학박사로 통하기까지 합니다.

대학에서 경영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화공학도 이태근씨 졸업후 유공 고분자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입사할때까지만 해도 자신은 경영과 무관한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 연수과정 중 접하게 된 SKMS를 접하게 되면서 경영이라는 것이 이론속에 파묻혀있는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현실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조별토의와 질의응답 그리고 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SKMS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그러한 생각에 더욱 확신을 갖게되었고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자신을 비롯한 신입사원 모두를 조금씩 성장시켜주는 데에 조금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흥미를 느낀 그가 요즘에는 대화중에 경영에 대한 나름의 논리를 골잡 파곤해서 주위친구들에게 경영학박사로 통하기까지 합니다.



SUNKYONG
鮮京그룹

대학로 생활문화한마당

퇴폐·향락가에 불어온 신선한 '회오리'

신촌, 안구정동 문화로 대표되는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 향락과 퇴폐로 얼룩져가는 대학로 대학로의 마로니에. 이런 잘못된 문화들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오는 31일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펼쳐진다. 서울지역 34개 대학(인간) 복지위원회의 모임인 서울지역 학

생(인간) 복지위원회(이하 서북원, 위원장=황금남·건국대 인권복지위원장)가 주최하는 '대학로 생활문화한마당'이 그것이다. 그동안 생활문화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온 서북원은 한계점이 나타난 현상태 문화 극복방안으로, 10대 청소년의 운상이 폐온 대학로에서의 행사를 기획했다. 문화적 충격이라 할만한 이번 행사의 기획의도에 대해 본교 학부위 위원장 권희선(인학4)은 "대학로의 문화풍토를 쇠신하고 우리의 좋은 전통문화를 확산시켜 건강한 청소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로니에 공원 곳곳에서 펼쳐질 4가지 주제마당의 상설행사와 총 다



▷대학로 생활문화한마당은 향락과 퇴폐로 얼룩져가는 대학로의 문화풍토를 쇠신하고 우리의 좋은 전통문화를 확산시켜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행사는 전통마당, 우리마당, 환경마당, 우리물품마당으로 구성돼 있는데, 사진은 '환경마당'의 유유곽팻기대회와 새생용품전시회.

'전통마당'등 4개마당...건전한 문화 보급 재할용품전-공해추방사진전 마련

가 준비한 '전통마당'행사는 널뛰기, 윷놀이, 투호(신라시대부터 남녀자들이 즐겨온 놀이로 꽃병에 화살을 던져 쫓는 경기) 놀이 등이 준비돼 구경꾼들이 즉흥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전통마당'에는 복자, 원자, 성화차등을 다기에 담아 전통차시음회가 준비되고 전통혼례식도 치뤄져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유의 풍습을 선보인다. 또한 '우리마당'에는 옛 조상들이 입은 일복 등을 요즘에 맞게 변형시킨 우리옷 전시회 및 저용소 장신겜 매동기 제작한 전통민속 놀이모습이나 등롱, 우리부녀들이 새겨진 옷 등 전시한다. '우리마당'에 준비된 눈길끄는 행

연을 진행한다. 공연의 마지막 부분은 관객들과 하나되는 대동한마당의 순서를 마련해 모든 참석자들과 어우러지는 마당을 계획하고 있다. '대학로 생활문화한마당'은 학내 생활문화운동에도 그쳐 계속되는 우리 생활문화 정착노력이 이제 사회로 뻗어나가는 시작이다. 이런 노력들은 우리전통문화의 발전·계승과 함께 잘못된 외래문화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일으켜 세우는 신명나는 한마당으로 승화될 것이다.

사로는 한살림('공동체'의 우리말) 우리말 살리기 운동본부와 함께 수입 밀의 해외성을 일리고 우리 밀의 재배 필요성을 알리는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전개된다. 수익사업이 아닌 홍보위주의 '우리물품 판매마당'에서는 민족생활의 구소와 참교육사, 절경이들의 우리 물품 제작기업들과 함께 문구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며 민족주류인 홍주, 옥수수주, 갈마주, 포천만경리와 북한 술인 개성인삼주 등도 함께 판매한다. 학내 재할용 사업의 정착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연세대 작은사

랑 실천모임이 중심이 되어 마련하는 '환경마당'은 수거함, 캔 압축기 등의 자원 재활용 기구와 과정을 보여줌과 새생용품전시회와 공해추방사진전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자원 재활용에 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유유곽 팻기대회'와 '강릉커피뜨리기 대회'등도 마련해 몸소 필요성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문예회관앞에 설치된 무대에서 진행되는 전통혼례, 풍물패의 길놀이 등이 이어지며 서촌전 문화국 노래단은 민요와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노래들로 꾸민 노래공

노·찾·사, 안치환, 윤선애, 극단 '아리랑' 등이 출연해 대체로운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31일 오후 3시, 7시, 연세대 대강당. 742-4274. <불선화>·극단 '산맥'의 다섯째 정기공연, 격려와 충격의 시기였던 50년대와 8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아 전형적인 세인물을 부각시켜 그 당시의 상황을 극명하게 엮어낸다. 11월4일부터 23일까지 월·화·수·목 오후 7시30분, 금·토·일 오후 4시, 7시, 세미 예술극장. 765-7647. <가슴에 들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영화)>...오는 11월7일부터 코아아트홀(3관), 푸미에극장에서 상영된다.

"비둘기를 살립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둘기들은 먹이를 찾아 쓰레기통까지 뒤적거린다. 또 거리로 내몰린 비둘기들은 어린이들과 자동차 덕택(?)에 목숨을 위협받으며 살고 있다.

아침이던 먹이를 찾아 후문쪽 맥주집이 꼭 틀어찬 골목길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는 비둘기들의 모습은 이미 우리에게 낯익은 풍경이다. 근대 명진관원 백상음식점에서 사람들이 먹다버린 음식 찌꺼기들이 주워들려 버려지는 비둘기들도 이전 늘상 보는 풍경이다. 어떤 사람들은 "더럽다"는 생각에 쫓아버리기도 하고 무심코 돌을 던지기도 한다. 빌딩 숲 한가운데에 등지를 틀이 '거렁뱅이'비둘기들은 남산과 장충단 공원을 끼고 있는 우리학교 주위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딱히 관리하는 곳이나 먹이를 공급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비둘기를 돌보는 기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찾아간 필동 동사무소에서 만난 공원복지담당 직원 이창호씨는 "특별히 관리하는 곳은 없어요. 단지 몇몇 주민들이 가끔 고추씨나 쌀가루를 뿌려줄 뿐이죠"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할 관공서에서는 "비둘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귀찮아 했다. 결국 학교 주위를 맴도는 비둘기들은 아무도 보살피고 있지 않아 먹이도 못구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조나 새들을 쫓던 비둘기들이 이제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을 먹어 '잡식성'이 돼 있다. 그나마도 부족해 쓰레기통까지 뒤적고 먹어 '평화의 상징'이라는

지상전시 이종구전 '땅의 사람들' - Includes photos of people and text about an art exhibition.

문화단신 공연안내 - Advertisement for a cultural performance.

알아들시다 전화서비스 - Advertisement for a telephone service.

문예회관앞에 설치된 무대에서 진행되는 전통혼례, 풍물패의 길놀이 등이 이어지며 서촌전 문화국 노래단은 민요와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노래들로 꾸민 노래공

대안학교 - Advertisement for an alternative school.

재단의 속임이 - Article discussing the hidden motives of a foundation.

휴거다! - A comic strip about a person named Hyeok-ga.

(주)금강·고려화학·금강종합건설은 무기·유기화학 및 건설분야의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 Large advertisement for chemical and construction companies.